

[수능+사관1차 문법] 이것으로 끝!

國申

[문법 '이것으로 끝!' 목차]

[1강] 문법 학습을 위한 필수! 기본용어	3P
[2강] 음운변동 출제경향 & 음운변동(1) 교체	8P
[3강] 음운변동(2) - 축약, 탈락, 첨가	13P
[4강] 음운변동 실전연습 & 기출문제 분석	17P
[5강] 품사 출제경향 & 품사(1) - 체언, 관계언	27P
[6강] 품사(2) - 수식언, 독립언, 용언	32P
[7강] 단어의 형성 - 합성어, 파생어(접사)	37P
[8강] 품사, 단어의 형성 실전연습 & 기출문제	40P
[9강] 문장성분 출제경향 및 개념	58P
[10강] 문장성분 실전연습 & 기출문제	64P
[11강] 문장의 구조 출제경향 및 개념	74P
[12강] 문장의 구조 실전연습 & 기출문제	78P
[13강] 문법요소 출제경향 및 개념	84P
[14강] 문법요소 실전연습 & 기출문제	91P
[15강] 중세국어 출제경향 및 개념	96P
[16강] 중세국어 실전연습 & 기출문제	106P

2. 자음 : 모음과 만나야 소리가 나는 의존적인 소리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기본 5글자를 만들고, 다시 가획하여 다른 글자를 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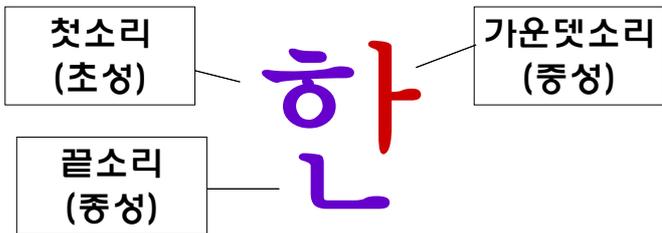
Note

조음 방법	조음 위치		두 입술	혀끝	센입천장 (경구개)	여린입천장 (연구개)	목청 사이
	예사소리(평음)	된소리(경음)					
안울림 소리	파열음 (공기의 흐름 막았다가 터짐)	예사소리(평음)	ㅂ	ㅅ		ㄱ	
		된소리(경음)	ㅃ	ㅆ		ㄲ	
		거센소리(격음)	ㅍ	ㅈ		ㅋ	
	파찰음 (파열과 마찰 모두)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ㅊ	
		거센소리				ㅊ	
마찰음 (공기가 좁은 틈 사이로 새어 나감)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울림 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음절

소리의 최소 단위로서, 국어의 음절은 반드시 모음을 필요로 한다.

- 국어의 음절은 '아, 어, 여, 왜……'와 같이 모음만으로 되는 것
- '안, 옥, 울, 열, 웬……'과 같이 모음+자음으로 되는 것
- '가, 나, 교……'와 같이 자음+모음으로 되는 것
- '강, 산, 달, 별……'과 같이 자음+모음+자음으로 되는 것, 네 종류가 있다.



음절삼분법

첫 소 리 : 자음(닿소리)
 가운뎃소리 : 모음(홀소리)
 끝소리(받침) : 첫소리 자음을 같이
 씌므로써 글자수를 줄임

품사

Note

형태 변화	기능	의미		예
가변어	용언	동사	움직임을 나타냄	달리다, 먹다, 자다, 공부하다
		형용사	상태나 성질을 나타냄	예쁘다, 빠르다, 겹다
불변어	체언	명사	이름을 가리킴	책, 사람, 전화기, 개
		대명사	이름 대신 가리키는 말	나, 너, 그, 우리, 그것
		수사	수(數), 순서를 나타냄	하나, 둘, 일, 이, 삼
	수식언	관형사	주로 체언을 꾸밈	한, 두, 옛, 오랜, 새
		부사	주로 용언을 꾸밈	정말, 매우, 참, 아주, 꽤
	관계언	조사	문장성분들 간의 관계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줌	이/가, 은/는, 을/를, 에게, 에서, 만, 도
독립언	감탄사	감탄, 부름, 대답 등	깡, 으, 아, 어이	

용언의 활용

‘활용’이란?

- 어간 -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 뜻을 지닌 줄기가 되는 부분이다.
- 어미 -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으로 어간 뒤에 붙는다.
단어의 끝에 오는 ()와 어말 어미 앞에 오는 ()가 있다.

먹다
먹고
먹어서
먹었다
먹자
.....

- ① 왼쪽처럼 ‘먹다’란 동사가 문장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 ② 이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은 (먹) ← (어간)이라 부른다.
- ▶ ③ ‘먹었다’ ‘먹는구나’를 문법 요소로 분석해 보자
(먹) + (었) + (다) / (먹) + (는) + (구나)
 ↓ ↓ ↓ ↓ ↓ ↓
[] [] [] [] [] []

- 용언의 어간을 찾기 힘들 때? 기본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예뻤다’의 어간은? 예? 예ㅁ? 예ㅂ? - 모두 틀린 답이다.
그럼, ‘예뻤다’의 기본형은? (예쁘다) - 여기서 ‘다’를 빼면? (예쁘), 이게 어간!
모든 기본형은 (어간)+(-다)로 이루어진다.
예뻤다 - 예쁘 + 었 + 다 → 이 과정에서 ‘예쁘’의 ‘ㅡ’가 탈락!
 [어간]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 어미의 종류

어말 어미	종결어미		먹 + 는다 / 먹 + 어라 / 먹 + 자	
	비종결 어미	연결어미		먹 + 고 / 먹 + 지만 / 먹 + 지 (마라)
		전성 어미	관형사형 어미	먹 + 던 / 먹 + 는 / 먹 + 을 (사람)
			명사형 어미	먹 + 기 / 먹었 + 음 / 보 + ㅁ
선어말 어미	높임, 시제, 공손 등의 의미		가 + 시 + 겠 + 습니까 [높임] [시제]	

Note

형태소

뜻을 가진 말의 가장 작은 단위

(1) 형태소 : 뜻(의미) 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의미의 최소단위)

- 1) 자립성 유무에 따라
 - └자립 형태소 - 체언, 수식언, 감탄사 등
| 예)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 └의존 형태소 - 조사, 어간, 어미, 접사
 예)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 2) 의미의 기능 여부에 따라
 - └실질 형태소 - 체언, 수식언, 감탄사, 용언의 어근
| 예)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 └형식 형태소 - 조사, 어미, 접사
 예)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2) 이형태

[이형태] : 하나의 형태소이나, 다른 형태를 가진 형태소들을 이형태라고 한다.

1. 음운론적 이형태 : 하나의 형태소가 음운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가짐
 - (1) 선행하는 음운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 주격 조사 '이, 가'
 - 목적격 조사 '을, 를'
 - 부사격 조사 : '으로, 로'
 - 그 외 다양함
 - (2) 선행하는 음운이 양성이나 음성이냐에 따라
 - 먹어라 / 잡아라 등 그 외 다양함
2. 형태론적 이형태 : 음운론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이형태
 - (1)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 았/였
 - 하였다, 먹었다
 - (2) 명령형 어미 '어라/너라'

매개 모음 '-으-'는 형태소 자격이 없다.
 ⇒ 형태소란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인 까닭에 '-으-'가 실질적, 형식적 기능을 해야만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으-'는 홀로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며, 실질 형태소에 붙더라도 말과 말 사이에서 문법적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 다만 발음의 편의상 들어가기 때문에 형태소가 아니다.
 예) 먹다 ⇒ 먹으니, 먹으면, 먹으나

(2) 형태소 연습하기

Note

종류		산 에 밤 나무 가 많 다	제리가 톰에게 잡혔다
자립성을 가졌나?	자립 형태소	산, 밤, 나무	제리, 톰
	의존 형태소	에, 가, 많, 다	가, 에게, 잡, 히, 었, 다
실질적인 뜻을 가졌나?	실질 형태소	산, 밤, 나무, 많	제리, 톰, 잡
	형식 형태소	에, 가, 다	가, 에게, 히, 었, 다

언어의 특성

- ▷ 언어의 특성
- 언어의 기호성
 - 말소리와 의미의 결합
 - 언어의 자의성
 - 형식과 내용이 필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님.
 - 언어의 규칙성
 - 일정한 규칙에 따라 사용
 - 언어의 창조성
 - 한정된 음운으로 수많은 새로운 형태소와 단어들을 생성
 - 언어의 사회성
 - 언어는 사회적 약속.
 - 언어의 역사성
 - 말소리, 표기, 의미 등은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 창조 되기도 함.

[2강] 음운변동 출제경향 & 음운변동(교체)

[음운 변동 현상]

: 우리말을 발음할 때,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면서 음운이 서로 결합하면서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음운 규칙]

: 음운 변동 중 규칙적인 현상을 의미

[음운 규칙의 종류]

- 발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규칙 : 교체, 동화, 축약, 탈락
-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규칙 : 사잇소리 현상

[음운 변동 총정리 지도 그리기]

구 분		출제 패턴 파악하기
1. 교체	1-1). 교체	끝소리 규칙, 된소리 되기
	1-2). 동화	자음동화(비음화, 유음화), 모음동화, 구개음화
3. 탈락		자음탈락(ㄱ, ㄴ, ㄹ탈락), 모음탈락(-, ㅏ, 동음탈락), 자음군단순화
4. 축약		기센소리되기(자음축약), 모음축약
5. 첨가		사잇소리 현상, ㄴ첨가 [반모음 첨가]

1. 교체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음절의 끝소리, 즉 받침(종성)이 되는 자음이 발음될 때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가지 자음만 올 수 있다는 규칙

[끝소리 규칙]

앞	→	[입]
옷, 낫, 꽃, 바깥, 히을		[으], [남], [꼐], [바깡], [히을]
밖, 부엌		[박], [부억]

- 표은 대표음 ()으로 발음.
- ㅅ, ㅆ, ㅈ, ㅊ, ㅌ, ㅎ은 대표음 ()으로 발음.
- ㄱ, ㅋ은 대표음 ()으로 발음.

[연음현상과 함께 이해] - 주의! 연음은 음운변동이 아니다!

- > 단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가 온다면?
예) 옷이, 옷을, 값이, 값을, 낫으로
- > 단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태소가 온다면?
예) 꽃 위, 옷 안, 옷 아래

[겹받침의 끝소리 규칙] - 자음군단순화(탈락 현상)

- 1) **ㅁ** **ㅂ** **ㅅ** **ㅆ** **ㅈ** **ㅊ** **ㅋ** **ㆁ** 은 첫째 자음만 남는다.
예) 값, 뭉, 앉고, 외곶, 활고
- 2) **ㄴ** 은 둘째 자음이 남는다.
예) 삶, 읊지
- 3) **ㄹ** 은 불규칙적
예) 워고, 워지 / 넓다, 밭다
ㄴ은 대개의 경우, 앞의 ‘ㄹ’이 남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밭-’과 ‘넓-’은 예외
<밭->
· 자음 앞 : [밥]으로 발음. 예) 밭다, 밭소
<넓->
· 넓죽하다, 넓둥글다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
ㄴ은 대개의 경우, 앞의 ‘ㄹ’이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ㄱ’은 ‘ㄱ’ 앞에서 ‘ㄱ’이 탈락하고 ‘ㄹ’이 남는 불규칙을 보임.
예) 맑게, 워고, 뭉고 등

(2) 된소리되기 (경음화)

: 두 개의 안울림소리(장애음)가 만나면 뒤의 안울림소리(장애음,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데 이를 된소리되기라고 한다.

국밥 → 「국뺨」, 견고 → 「견꼬」, 없다 → 「업따」,
 덮개 → 「덥깨」, 역도 → [역또], 젓소 → 전소 → [전쏘]

- 단, 어간말 자음이 ‘ㄴ, ㄹ’일 때 뒤 따르는 어미의 자음이 된소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관형사형 어미 뒤의 자음이 된소리로 나타나기도 함.
 (굶고 [굶:꼬], 신고 [신:꼬], 갈 데가 [갈 떼가] 등)
- 된소리되기는 사잇소리현상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2. 동화

(1) 자음동화

: 음절의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자음을 닮아서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자음이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기도 하는 현상

- 비음화(ㅁ, ㄴ, ㅇ) :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ㄱ) 파열음이 뒤에 오는 비음에 동화되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ㅂ, ㄸ, ㄱ → [ㅁ, ㄴ, ㅇ] / ㅁ, ㄴ 앞

예) 국물, 밥맛, 달는 등

(ㄴ) 유음 ‘ㄹ’이 비음 ‘ㅁ, ㅇ’을 만나면 비음 ‘ㄴ’으로 변화

ㄹ → [ㄴ] / ㅁ, ㅇ

예) 남루, 등

(ㄷ) **ㅂ, ㄸ, ㄱ + ㄹ → [ㅁ, ㄴ, ㅇ] + [ㄴ]**

예) 독립, 입력, 섭리, 격려 등

(ㄹ) 앞날, 흠냄새

- 유음화(ㄹ) : 유음이 아닌 자음이 유음의 영향으로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

‘ㄴ’ 과 ‘ㄹ’ 이 만났을 때 ‘ㄴ’ 이 ‘ㄹ’ 로 바뀌는 현상 ㄴ → [ㄹ] / ㄹ의 앞이나 뒤	신라 → [실라], 천리 → [철리], 논리 → [놀리]
	칼날 → [칼랄], 찰나 → [찰라], 말눈 → [말룬], 실날같이 → 실랄가티 → [실랄가치]
	앓는 → 알는 → [알룬], 꿀는 → 끝는 → [끝룬], 흠는 → 훔는 → [훔룬]

<예외>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 : 견난], 임진란[임 : 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뎨녁], 공권력[공권녁],
 동원령[동 : 원녕], 상견례[상견녜],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 : 원논], 입원료[이뵤뇨],
 구근류[구근뉴]

(2) 모음동화

: 모음과 모음이 만날 때 한 모음이 다른 모음을 닮는 현상

=> 대부분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전설모음화 : 후행 'ㅣ'의 영향으로 선행 'ㅏ, ㅑ, ㅓ, ㅕ'가 'ㅐ, ㅔ, ㅖ, ㅘ'로 바뀌는 현상

예> 아비 →[애비], 잡히다 →자피다 →[재피다], 먹이다 →머기다 →[메기다]

→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전설모음화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표준어로 인정하는 단어>

냄비, 서울내기, 시골내기, 신출내기, 풋내기, 소금쟁이, 담쟁이덩굴, 멧쟁이, 골목쟁이, 발목쟁이, (불을) 땡기다, 동맹이치다

- 'ㅣ'모음 순행 동화(이중 모음화) : 'ㅣ'의 뒤에 후설 모음 'ㅓ, ㅕ'가 오면

'ㅣ'의 영향을 받아 각각 'ㅛ, ㅜ'로 변하는 현상

예> 기어 →[기여], 먹이었다 →[머기열따], 미시오 →[미시요], 당기시오 →[당기시요]

<표준어로 인정하는 단어>

되어 →[되여/되여], 피어 →[피어/피여], 이오 →[이오/이요], 아니오 →[아니오/아니요]

(3) 모음조화

- 모음조화 :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려 발음되는 현상

- 양성모음 : ㅏ, ㅓ, ㅖ → 밝고, 가볍고 작은 느낌 (풍당풍당)
- 음성모음 : ㅑ, ㅕ, ㅗ → 거칠고, 무겁고, 큰 느낌 (풍덩풍덩)
- 중성모음 : ㅣ

(4) 구개음화

: 'ㄷ, ㅌ' 등 치조음이 'ㅣ' 모음과 결합할 때, 'ㅈ, ㅊ' 등 구개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굳이[구지], 해돋이[해도지], 같이[가치], 붙이다[부치다]

예) 달히어 [다티어→다치어→다쳐], 굳히다[구티다→구치다]

(5) 두음법칙 (외래어는 예외)

- 'ㄹ'이 단어의 첫소리로 쓰이지 않고 'ㄴ'으로 바뀌는 현상

예) 로인→노인, 리발소→니발소→이발소 등

- 'ㄴ'이 단어의 첫소리로 쓰일때 'ㅣ', 반모음 ㅣ' 앞에서 'ㅇ'이 되는 현상

예) 소녀→여자, 백년→연세 등

[기본개념 점검 확인문제]

1.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암탉이 달걀을 낳았다. - [암탈기]
- ② 그는 계단을 밟고 천천히 내려갔다. - [밥:꼬]
- ③ 여기저기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 [꼬시]
- ④ 그분은 눈이 어두워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 [익찌]
- ⑤ 현충원을 참배하여 순국선열들의 넋을 위로했다. - [넉쓸]

2. 다음 중 자음 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는?

- ① 옷이
- ② 곤란하다
- ③ 먹는다
- ④ 달는다
- ⑤ 불났어

3. 다음 중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는?

- ① 물난리
- ② 백로
- ③ 섭리
- ④ 굳혀
- ⑤ 굳이

4.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미담이'와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 ① 우리 도서관에 같이 공부하러 가자.
- ② 내 말을 곧이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 ③ 문화센터에서 꽃꽂이를 배우니 정말 재미있다.
- ④ 이렇게 넓은 밭이 있으니 우리는 걱정이 없겠다.
- ⑤ 올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올 것이니 물받이를 수리해 두어라.

5. 답력을 [담녁]으로, 종로를 [종노]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발음의 변화가 표기에 그대로 반영된다.
- ② 발음을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한 변화이다.
- ③ 모음의 영향을 받아 자음의 형태가 바뀐다.
- ④ 모든 자음에서 동일한 음운 현상이 일어난다.
- ⑤ 뒤에 오는 음운의 영향으로 앞에 오는 음운이 바뀌었다.

[3강] 음운변동 (축약, 탈락, 첨가)

3. 탈락 / 축약

Note

(1) 용언의 활용이나 축약 과정에서의 발음 탈락

[자음탈락]

- ‘ㄹ’ 탈락 규칙 : ‘ㄹ’이 뒤에 오는 잇몸소리 혹은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
 - 활용 과정에서 ‘ㄹ’의 탈락 : ‘ㄹ’규칙 용언에서 어간의 끝소리 ‘ㄹ’이
 ‘ㄴ, ㅂ, ㅅ, ㅇ’ 앞에서 예외 없이 탈락
 같다 :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동글다 : 동그니, 동근, 동급니다
- ‘ㅎ’ 탈락 : ‘ㅎ’이 끝소리인 어간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 앞에서 ‘ㅎ’ 탈락
 날은 [나은], 놓아 [노아], 쌓이다 [싸이다], 많아 [마:나], 많은 [아는], 닳아 [다라]
- ‘ㅅ’ 탈락 : 원래의 형태소에서 ‘ㅅ’이 탈락하는 현상
 곳다 → 그어 등
- 동음탈락 : 합성과정에서 동음 중 앞자음이 탈락하는 현상
 간난 → 가난, 목과 → 모과

[모음탈락]

구 분	성 격	예 시
동음탈락	이어진 동음 중 뒤의 모음 탈락	가아 → 가
‘ㅏ’탈락	‘하다’의 어간 ‘하-’의 ‘ㅏ’탈락	흔하지→흔치, 간편하게→간편케 연구하도록→연구토록
	(비교) ‘하다’의 어간 ‘하-’ 탈락	거북하지→거북지, 생각하건대→생각 건대
‘ㅓ’탈락	어간 ‘ㄱ’, ‘ㅈ’ 아래에서 탈락	깨어 → 깨
‘ㅜ’탈락	어미 ‘-어’ 앞에서 탈락	푸어 → 퍼
‘ㅡ’탈락	어미 ‘-아/-어’ 앞에서 탈락	쓰어 → 써

* 동음탈락 : -아서, -어서, -어라, -아라 등이 오는 경우에 주의해서 보도록 하자.

(2) 합성이나 파생과정에서의 탈락

- ‘ㄹ’ 탈락 규칙 : ‘ㄹ’이 뒤에 오는 잇몸소리 혹은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
 - 합성과 파생 과정에서의 ‘ㄹ’탈락 : 끝소리 ‘ㄹ’이 ‘ㄴ, ㄷ, ㅅ, ㅈ’ 앞에서 탈락
 부나비(불-나비), 부삽(불-삽), 싸전(쌀-전), 여닫이(열-닫이)

—<보기>—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횃수(回數)

[제3강 기본개념 점검 확인문제]

1.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 네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에게는 당할 수 없다.

- ① 낳은[나은]
- ② 놓아[노아]
- ③ 놓고[노코]
- ④ 앓은[아는]
- ⑤ 싫어도[시러도]

2. 다음 음절 축약에서 옳바르지 않은 것은?

- ① ㅡ + ㅣ = ㅝ 내 눈에 뜨지 않도록 조심히 움직여라.
- ② ㅏ + ㅣ = ㅓ 문법 개념은 너무 어려워서 다 외우기 어려웠다.
- ③ ㅏ + ㅓ = ㅑ 내가 봐서 괜찮은 신랑감인지 판단해주지.
- ④ ㅓ + ㅓ = ㅕ 창고에 놓인 도구를 나에게 줘.
- ⑤ ㅣ + ㅓ = ㅑ 문 밖을 나서니 푸른 산이 보였다.

3. 두 음운이 마주할 때, 그 중 한 음운이 완전히 탈락하는 형상이 아닌 것은?

- ① 보니
- ② 씨라
- ③ 소나무
- ④ 미달이
- ⑤ 우는

4. 음운 변동과 그 예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히읗 → /히을/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② 국밥 → /국빱/ - 된소리되기
- ③ 손잡이 → /손좨이/ - 모음동화
- ④ 먹는다 → /멍는다/ - 유음화
- ⑤ 해돋이 → /해도지/ - 구개음화

5. 음운의 탈락이 일어나는 단어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 ① 보여 - 놓아
- ② 바느질 - 쇠붙이
- ③ 북한 - 낳은
- ④ 잡히다 - 잣나무
- ⑤ 아드님 - 여달이

[4강] 음운변동 실전연습 & 기출문제 분석

[음운변동 실전 연습문제]

1. <보기 1>에는 모두 ‘ㄴ’첨가가 일어나는 단어들 이 제시되어 있다. <보기 2>를 참고하여 <보기 1>의 단어에서 나타나 는 음운 변동을 언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직행열차[지깁널차], 훌이불[훈니불], 내복약[내 : 봉낙], 콩엿[콩년], 색연필[생년필]

<보기 2>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외의 자음이 음절 끝에 오면 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 비음화 :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 ㅁ, ㅇ’으로 바뀌는 현상
- 유음화 :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는 현상
- 거센소리되기 :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이 되는 현상
- ‘ㄴ’첨가 : 선행 요소가 자음으로 끝나고 후행 요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ㅚ’로 시작할 때 ‘ㄴ’이 새로 생기는 현상

- ① ‘직행열차 → [지깁널차]’의 변동 과정은 거센소리되기과 ‘ㄴ’첨가를 포함한다.
- ② ‘훌이불 → [훈니불]’의 변동 과정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와 ‘ㄴ’첨가를 포함한다.
- ③ ‘내복약 → [내 : 봉낙]’의 변동 과정은 유음화와 ‘ㄴ’첨가를 포함한다.
- ④ ‘콩엿 → [콩년]’의 변동 과정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첨가를 포함한다.
- ⑤ ‘색연필 → [생년필]’의 변동 과정은 비음화와 ‘ㄴ’첨가를 포함한다.

2. 다음을 참고할 때, 음운 변동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래의 음운 모습 그대로 발음되지 않고 바뀌어 나는 것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먹는’은 [멍는]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ㄱ’이 뒤에 오는 음운 ‘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입력되는 음운을 a, 출력되는 음운을 b, 환경을 X와 Y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aY → XbY
 먹는 [멍는]

이때 a는 Y의 영향을 받아 음운이 변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앞, 또는 뒤에 오는 음운의 영향을 받아 음운이 변동되는 것이다.

- ① ‘봄이 → [보미]’의 ‘ㅁ’
- ② ‘곡물 → [공물]’의 ‘ㄱ’
- ③ ‘권력 → [궐력]’의 ‘ㄴ’
- ④ ‘같이 → [가치]’의 ‘ㅌ’
- ⑤ ‘잡고 → [잡꼬]’의 ‘ㄱ’

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굳히다[구치다], 묻히다[무치다]
- ㉡ 읽고[일꼬], 넓다[널따]
- ㉢ 물약[물락], 할 일[할릴]

- ① ㉠은 자음 축약과 구개음화가 모두 일어났다.
- ② ㉡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후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다.
- ㉢은 ‘ㄴ’ 첨가가 일어난 후에 유음화가 일어났다.
- ④ ㉠, ㉡은 음운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 ⑤ ㉡, ㉢은 자음 동화가 포함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8. 다음 ㉠~㉢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빗+지 → [빈찌], 앞+다 → [업따]
- ㉡ 읽+다 → [익따], 밭+고 → [밭:꼬]
- ㉢ 흙+고 → [흙꼬], 할+지 → [할찌]

- ①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바꾸어 준다.
- ② 음절 초성에 놓인 자음에 적용된다.
- ③ 자음의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
- ④ 음운 변동의 유형 중 첨가에 속한다.
- ⑤ 인접한 자음의 종류가 음운 변동의 조건이 된다.

[음운변동 평가원 / 사관1차 / 교육청 최근 기출분석]

1. 다음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2016 수능A]

- ㉠ 옳지 → [올치], 좁히다 → [조피다]
- ㉡ 끊어 → [끄너], 쌓이다 → [싸이다]
- ㉢ 솟도 → [숏또], 웃고름 → [올꼬름]
- ㉣ 닭는 → [당는], 부엌문 → [부엌문]
- ㉤ 읽지 → [익찌], 훑거나 → [훑꺼나]

- ① ㉠, ㉡ : ‘ㅎ’과 다른 음운이 결합하여 한 음운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② ㉠, ㉢, ㉣ : 앞 음절의 종성에 따라 뒤 음절의 초성이 된소리로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③ ㉢, ㉣ : ‘값다 → [깅따]’에서처럼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④ ㉣ : ‘겉모양 → [건모양]’에서처럼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과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⑤ ㉢, ㉣ : ‘얹고 → [안꼬]’에서처럼 받침 자음의 일부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2. <보기>에 따라 겹받침의 표준 발음에 대하여 단계별로 학습하였다. 각 예에 적용된 내용과 그 발음이 모두 바른 것은? [3점] [2016 수능B]

<보기>

-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 되는 경우에는 뒤엎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 한다. 이 경우, ‘ㅅ’은 [ㅆ]으로 발음한다. ... ㉠
- 겹받침 ‘ㄱ, ㄴ, ㄷ, ㄹ, ㅂ, ㅅ, ㅈ’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ㄹ, ㅂ, ㅅ, ㅈ]으로 발음한다. ... ㉡
- 이 후에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 [ㄱ, ㅂ]은 ‘ㄴ, ㄹ’ 앞에서 각각 [ㅇ, ㄹ]으로 발음한다. ... ㉢
-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각각 [ㄱ, ㄷ, ㅂ, ㅅ, ㅈ]으로 발음한다. ... ㉣
- [ㄱ, ㅂ]은 ‘ㅎ’과 결합되는 경우, 두 음을 합쳐서 각각 [ㅋ, ㅍ]으로 발음한다. ... ㉤

	예	적용 내용	발음
①	여덟 + 이	㉠	[여더리]
②	몫 + 을	㉠	[목슬]
③	훑 + 만	㉡, ㉢	[훑만]
④	값 + 까지	㉡, ㉣	[깅까지]
⑤	닭 + 하고	㉡, ㉣	[다카고]

3. <보기>의 표준 발음법을 바르게 적용한 것은? [2016 9월 모평B]

<보 기>

- ㉠ 받침 ‘ㄷ, ㅌ’이 조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밭이[바치]
- ㉡ 받침 ‘ㄷ, ㅌ(ㄹ)’이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미달이[미다지]
- ㉢ 받침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예) 묻히다[무치다]

- ① ‘같이 걷다’의 ‘같이’는 ㉠에 따라 ‘ㅌ’을 [ㅊ]으로 바꿔 [가치]로 발음해야겠군.
- ② ‘술이나 냄비를 준비하다’의 ‘술이나’는 ㉠에 따라 ‘ㅌ’을 [ㅊ]으로 바꿔 [소치나]로 발음해야겠군.
- ③ ‘그것은 팔이다’의 ‘팔이다’는 ㉡에 따라 ‘ㅌ’을 [ㅊ]으로 바꿔 [파치다]로 발음해야겠군.
- ④ ‘자전거에 받히다’의 ‘받히다’는 ㉡에 따라 ‘티’를 [치]로 바꿔 [바치다]로 발음해야겠군.
- ⑤ ‘우표를 붙이다’의 ‘붙이다’는 ㉢에 따라 ‘티’를 [치]로 바꿔 [부치다]로 발음해야겠군.

4.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가 모두 바르게 제시된 것은? [3점] [2016 9월 모평A]

<보 기>

국어에는 거센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비음화, 유음화 등의 음운 변동이 있다.

- ㉠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밥하고[바파고] 떡이다.
- ㉡ 옷에 흠까지[흑까지] 묻히고 시내를 쏘다녔다.
- ㉢ 우리는 손을 잡고[잡꼬] 마냥 즐거워하였다.
- ㉣ 그는 고전 음악을 즐겨 듣는다[든는다].
- ㉤ 칼날[칼랄]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 ① ㉠의 예 : 먹히다, 목걸이
- ② ㉡의 예 : 값싸다, 닭똥
- ③ ㉢의 예 : 굳세다, 숨이불
- ④ ㉣의 예 : 겁내다, 맨입
- ⑤ ㉤의 예 : 잡히다, 설날

5.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 6월 모평A]

<보기>

선생님 : 어떤 음운이 주위에 있는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것과 동일한 음운으로 바뀌거나, 조음 위치 또는 조음 방법이 그것과 같은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동화라고 합니다. 그럼

㉠~㉤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것이 동화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고 그 이유를 말해봅시다.

- ㉠ 듣+고 → [듣꼬] ㉡ 놓+고 → [노코]
- ㉢ 훑+네 → [훑레] ㉣ 뽕+느라 → [뽕느라]
- ㉤ 넓+더라 → [널떠라]

학생 : _____ [가]

- ①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ㄱ’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ㄱ’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ㄱ’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②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ㅎ’이 ‘ㄱ’의 영향을 받아 ‘ㅎ’과 거센소리라는 점이 같은 ‘ㅋ’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③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ㄴ’이 ‘ㅌ’의 영향을 받아 ‘ㅌ’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ㄹ’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④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ㅂ’이 ‘ㄴ’의 영향을 받아 ‘ㄴ’과 콧소리라는 점이 같은 ‘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⑤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ㅂ’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ㄷ’과 동일한 소리인 ‘ㄷ’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6. <보기>에 따라 표준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2016 6월 모평B]

<보기>

<표준 발음법의 ‘된소리되기’ 중 일부>

- ㉠ 어간 받침 ‘ㄴ(ㄴx), ㄹ(ㄹx)’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어간 받침 ‘ㄹ, ㄹx’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 ① ‘(가슴에) 품을 적에’와 ‘(머느리로) 삼고’에서의 된소리되기는 모두 ㉠에 따른 것이다.
- ② ‘(방이) 넓거든’과 ‘(두께가) 얇을지라도’에서의 된소리되기는 모두 ㉡에 따른 것이다.
- ③ ‘(신을) 신겠네요’와 ‘(땅을) 밟지도’에서의 된소리되기는 모두 ㉢에 따른 것이다.
- ④ ‘(남들이) 비웃을지언정’과 ‘(먼지를) 훑던’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 ⑤ ‘(물건을) 얹지만’과 ‘(자리에) 앉을수록’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7. <보기>의 음운 현상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2006 4월 교육청]

<보 기>

자음 동화란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닮아서 그와 같은 소리나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 또는 서로 동화되어 두 소리가 같거나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가) 받침 ‘ㄱ, ㄷ, ㅂ’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한다.

(나)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붙임] 첫소리 ‘ㄴ’이 ‘ㄷ’, ‘ㅌ’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① (가)로 보아, ‘국민’이라는 단어는 [궁민]으로 발음해야 한다.
- ② (가)를 바탕으로 하면, ‘손을 잡는 엄마’에서 ‘잡는’은 [잠는]으로 읽어야 한다.
- ③ ‘난로’를 [날로]로 발음하는 것은 (나)의 적용을 받은 결과이다.
- ④ (나)의 [붙임]을 고려하여, ‘감기를 앓는 동생’에서 ‘앓는’은 [알는]으로 발음해야 한다.
- ⑤ ‘물난리’가 [물랄리]로 발음되는 것은 (나)의 경우가 두 번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8.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7 6월 평가원]

<보 기>

㉠ 맑+네 → [망네]

㉡ 낮+일 → [난닐]

㉢ 꽃+말 → [꼐말]

㉣ 굽+고 → [글꼬]

- ① ㉠ : ‘값+도 → [갑또]’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 ㉢ : ‘입+니 → [임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 : ‘물+약 → [물략]’에서처럼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 ㉢ : ‘팔+죽 → [판쪽]’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 : ‘읽+지 → [일치]’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있다.

9. <보기>의 선생님의 설명을 들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사관1차]

< 보 기 >

<표준 발음법 제17항>

받침 ‘ㄷ, ㅌ(ㄹ)’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붙임]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선생님 : 표준 발음법 제17항은 구개음화에 대한 발음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 ‘ㄷ, ㅌ’ 뒤에 오는 모음 ‘ㅣ’나 ‘히’가 조사나 접미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일 때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ㄷ, ㅌ’ 뒤에 오는 모음 ‘ㅣ’나 ‘히’가 원래부터 한 형태소의 일부이거나 실질 형태소의 일부일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 ㄱ. 오랜만에 미용실에 간 **만**이는 윷머리와 뒷머리 **술**을 많이 쳤다.
- ㄴ. **느티나무** 아래에서 쉬던 그는 흙에 **묻**힌 감자를 캐기 시작했다.
- ㄷ. 그는 **밭**이랑 논이랑 땅이 많아서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 ① ㄱ의 ‘만’이는 ‘ㄷ’ 뒤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마지]로 발음해야겠군.
- ② ㄱ의 ‘술’은 ‘ㅌ’ 뒤에 ‘ㅣ’나 ‘히’가 결합된 형태가 아니므로 [수출]로 발음해야겠군.
- ③ ㄴ의 ‘느티나무’는 ‘느티’가 원래부터 한 형태소이므로 [느티나무]로 발음해야겠군.
- ④ ㄴ의 ‘묻’은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무친]으로 발음해야겠군.
- ⑤ ㄷ의 ‘밭이랑’은 ‘ㅌ’ 뒤에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바치랑]으로 발음해야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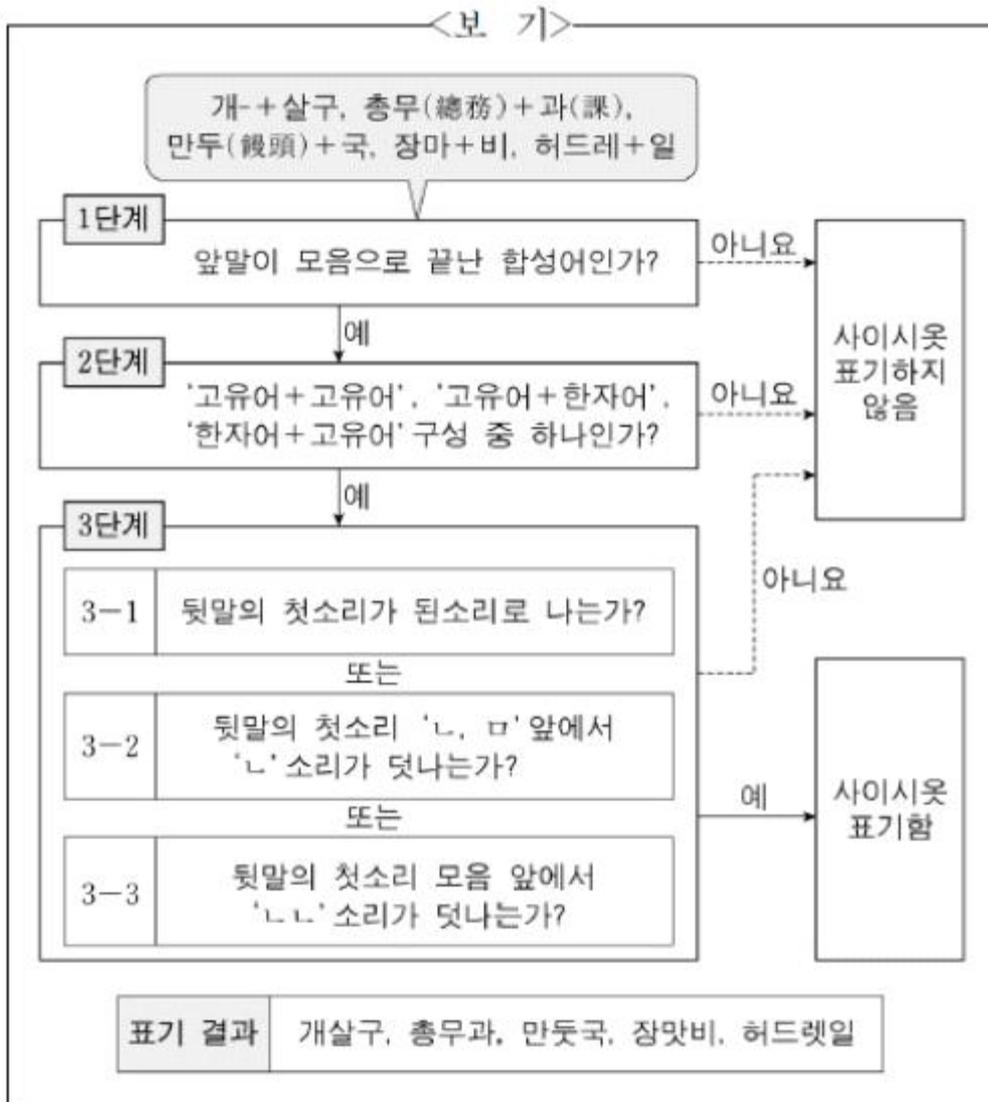
10. <보기>를 참고하여 음운 변동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사관1차 국어A]

< 보 기 >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변하는 현상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의 변동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

- ① ‘없다’는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서 [업따]로 발음한다.
- ② ‘앞문’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서 [암문]으로 발음한다.
- ③ ‘밟는’은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서 [밤는]으로 발음한다.
- ④ ‘닫히다’는 축약과 교체가 일어나서 [다치다]로 발음한다.
- ⑤ ‘짓이기다’는 탈락과 첨가가 일어나서 [진니기다]로 발음한다.

11. <보기>는 사이시옷 표기 조건에 관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습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5 9월 평가원 국어B]



- ① '개-+살구'의 구성은 1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개살구'라고 쓴다.
- ② '총무+과'의 구성은 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총무과'라고 쓴다.
- ③ '만두+국'의 구성은 1, 2, 3-1단계를 만족시키므로, '만둣국'라고 쓴다.
- ④ '장마+비'의 구성은 1, 2, 3-2단계를 만족시키므로, '장맛비'라고 쓴다.
- ⑤ '허드레+일'의 구성은 1, 2, 3-3단계를 만족시키므로, '허드렛일'라고 쓴다.

[5강] 품사 출제경향 파악, 품사(1) - 체언 / 관계언

[머릿속에 박혀있어야 하는 품사 도식표]

Note

기능 기준	형태 기준	9품사 (의미기준)	필수 출제패턴 정리
체언	불변어	명사	의존명사를 구분할 수 있는가? 유정명사와 부정명사의 조사사용 차이를 알고 있는가?
		대명사	인칭대명사, 미지칭, 부정칭, 재귀대명사 알고 있는가? 기본 지시대명사, 품사의 동용과 연관지를 수 있는가?
		수사	품사의 동용과 연관지를 수 있는가?
관계언	불변어	조사	격조사, 모조리 안기하고 있는가? 보조사 개념을 이해하는가?
독립언		감탄사	-
수식언	불변어	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과 관형사를 구분할 수 있는가?
		부사	문장부사를 알고 있는가? 부사와 용언을 구분할 수 있는가?
용언	가변어	동사	불규칙활용, 본용언/보조용언 알고 있는가?
		형용사	동사, 형용사 구분하나?

1. 단어-체언

(1) 체 언 (명사, 대명사, 수사)

1) 명사

[명사의 주요 성격]

1.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
2. 단독으로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음
3. 조사가 붙어 격(문장성분) 표시가 이루어진다.
4.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다.
5. 복수형을 취할 수 있다.

① 쓰이는 범위에 따라

- (ㄱ) 고유 명사 - 특정한 사람이나 물건에 붙여진 이름
- (ㄴ) 보통 명사 - 같은 종류의 사물에 두루 쓰이는 명사

② 자립성 유무에 따라

- (ㄱ) 자립명사 - 다른 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여러 성분으로 쓰이는 명사.
예) 사람, 바다
- (ㄴ) **의존 명사** - 명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그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관형어) 아래에서 도움을 받아 쓰이는 말.
예) 것, 데, 뿐, 단위명사, 대로, 만큼 등

③ (참고) 그 밖의 분류 ;

- ┌유정 명사 -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명사. 예) 사람, 개
- └무정 명사 - 식물이나 무생물을 가리키는 명사. 예) 나무, 집
- ┌가산 명사(수량 명사) - 셀 수 있는 명사. 예) 사람, 집
- └질량 명사 - 셀 수 없는 명사. 예) 하늘, 물

2) 대명사

[대명사의 주요 성격]

1.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여 지칭하는 말
2. 단독으로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음
3. 조사가 붙어 격(문장성분) 표시가 이루어진다.
4.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 없음. (용언의 관형사형의 수식은 가능함)

① 인칭 대명사

- (ㄱ) 1인칭 대명사 : 말하는 이를 가리킴. 예) 나, 우리, 저, 저희
- (ㄴ) 2인칭 대명사 : 듣는 이를 가리킴. 예) 너, 자네, 그대, 당신
- (ㄷ) 3인칭 대명사 : 다른 사람을 가리킴.
예) 저이, 그이, 이분, 그분

② 지시 대명사 → 관형사와 의존 명사의 합성형태가 많음

(ㄱ) 사물 대명사 : 사물을 대신하여 가리킴. 예) 이것, 무엇, 아무것

(ㄴ) 처소 대명사 : 처소나 방향을 가리킴. 예) 거기, 어디, 아무데

③ 미지칭, 부정칭, 재귀대명사

구 분	인칭	지시
미지칭		
부정칭		

- 재귀대명사 : 3인칭의 중복회피

* 높임

* 낮춤

④ 대명사 품사의 통용

-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 이 여자가 바로 내 여자다.

3) 수사 : 명사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단어

① 양수사 : 수량을 가리키는 단어. 예) 하나, 열, 일, 이, 이십, 백

② 서수사 : 순서를 가리키는 수사. 예) 첫째, 셋째, 제일, 제이, 일호

* 참고 1. 수사는 복수 표시를 할 수 없다.

2. 한 문장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가 같은 성분으로 쓰일 때는

‘대 + 명 + 수’의 순으로 놓는다. 예) 우리 한국인 칠천만

③ 수사 품사의 통용

- 두 명이 여기 왔다.

- 사과 하나가 나무에서 떨어졌다.

Note

2. 단어-관계언

Note

(1) 조사

[조사의 주요 성격]

1. 문법적 기능을 하거나, 특정한 뜻을 더해줌.
2. 주로 체언 뒤에 결합

1) 조사의 갈래

① **격조사** : 한 문장에서 선행하는 체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해주는 조사.

체언의 문장 성분을 표시한다.

(ㄱ) 주격 조사 ; 이/가, 께서, 에서(단체), 서(사람의 수효를 표시)

(ㄴ) 서술격 조사 ; -(이)다

- * 동사나 형용사는 단독으로 서술어가 되지만 ‘이다’는 앞에 오는 체언에 의존한
다는 점에서 조사의 성격을 지니면서, 활용한다는 점에서 용언의 속성을 지닌다.

* 아니다(형용사)

(ㄷ) 목적격 조사 ; 을/를, -르(때로는 방향, 처소, 낙착점, 주격에 쓰임)

(ㄹ) 보격 조사 ; 이/가 (‘아니다, 되다’의 지배를 받음)

(ㅁ) 관형격 조사 ; 의

(ㅂ) **부사격 조사** ; 예, 에서, 에게, 한테서, (으)로, 하고, 와

(ㅅ) 호격 조사 ; 아/야, (이)시여, (이)여

② **접속 조사** ㄱ문장체 ; 와/과

ㄴ구어체 ; -하고, (예)다, (이)며, (이)랑, (이)나

(ㄱ)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기능을 표시하는 조사.

(ㄴ) 양쪽의 체언을 대등하게 연결하여 같은 문장 성분이 되게 함.

‘와/과’의 쓰임

- 두 개 이상의 문장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면(겹문장이면) 접속 조사이며
바꾸어 쓸 수 없으면(홀문장이면) 부사격 조사

예 나는 국어와 수학을 잘한다. ⇒ 나는 국어를 잘한다. 나는 수학을 잘한다.

예 나는 철수와 비슷하다. ⇒ *나는 비슷하다. *철수는 비슷하다.

- ③ 보조사 ㄱ(ㄷ) 어떤 특별한 뜻(일정한 의미)을 더해주는 조사
 | ㄴ) 말하는 이의 어떤 생각이 전제되어 있을 때 쓴다.
 ㄴ(ㄷ) 말의 표현을 더 섬세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사.

Note

형 태	의 미	예 문
은/는	대조(주제)	사자는 맹수다.
도	역시, 동일	그 사람도 마찬가지다.
만	유일, 단독	너만 꼭 그런 짓을 한다.
요	높임	당신만 먹어요.
까지	극한	너까지 그럴 줄이야.
마저	한계	그녀마저 나를 비난하였다.
조차	첨가	철수조차 영희를 비난하다니.
부터	출발점	부천부터 서울까지.
마다	보편	사람마다 그를 욕했다.
(이)야	필연, 당위 강조, 감탄	설마 그럴 리야 있겠니? 우습구나야. 굉장히 좋다야.
(이)나 (이)나마	최후 선택	밥이나 주시오.오죽이나 할까? 천원이나마 남았더라면 좋았을텐데

보조사

- (ㄱ) 보조사가 결합된 문장의 성분은 다른 격조사를 대입하여 파악한다.
 ㄹ예) 우리는 학생이다. ⇒ 우리가 (주어)
 (ㄴ) 보조사는 부사나 용언과도 결합한다.
 ㄹ예) 나는 그의 인품을 잘은 모른다.
 크지도 않은 사람이 큰 일을 해냈다.
 (ㄷ) 다른 격조사와 어울려 쓰이기도 한다.
 ㄹ예) (부 + 보) 우리에게는, 그하고도 (보 + 주) 그것만이 , (보 + 목) 사과만을

격조사와 보조사

- ㄱ격조사 - 문법적 관계를 표시, 원칙적으로 체언과 결합, 생략될 수 있음.
 ㄴ보조사 - 일정한 의미 부여, 여러 품사와 결합, 생략될 수 없음.

‘대로, 만큼, 뿐’

- ㄱ관형어 + ‘대로, 만큼, 뿐’ ⇒ (의존) 명사 ㄹ예) 아는 대로
 ㄴ체언 + ‘대로, 만큼, 뿐’ ⇒ 조사 ㄹ예) 너대로

[6강] 품사(2) - 수식언 / 독립언 / 용언

4. 단어-수식언/독립언

Note

(1) 관형사

[관형사의 주요 성격]

1. 체언 앞에서 체언, 주로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
2. 체언 중 수사와는 결합할 수 없다.
3. 조사와 결합할 수 없으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형태가 변한다면, 즉 활용을 한다면 품사는 용언이다.)

1) 관형사의 종류

성상관형사	사물이나 상태를 수식	새, 흰, 첫, 헛, 한, 온갖.....
지시 관형사	지시성	이, 그, 저, 이런, 저런, 그런.....
수 관형사	수량을 나타냄 (주로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와 결합)	한, 두, 세, 네, 다섯.....

(2) 부사

[부사의 주요 성격]

1. 주로 용언 앞에서 용언을 수식(용언의 의미를 분명히 함).
2. 용언 한정 외에도 다양한 수식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용언 한정 : 차가 잘 구르는구나.
 - 체언 수식 : 저 건물이 바로 박물관이다. (관형사로 볼 수도 있음)
 - 관형사 수식 : 이것은 아주 새 것이다.
 - 부사 수식 : 올해는 비가 참 많이 내린다.

(3) 독립언-감탄사

[감탄사의 주요 성격]

1. 말하는 이의 부름, 대답, 느낌 등을 독립적으로 나타냄.
 - 여보, 오늘 소풍가자. (부름) / 자기야, 오늘 소풍가자. (X)
 - 아! 너무 아름답다. (느낌)
 - 네, 우리 컵밥 먹어요. (대답)
2. 문장 속에서 다른 성분과 연결되지 않고, 독립성을 가짐.

5. 단어-용언

Note

(1) 용언

[용언의 주요 성격]

1. 문장의 주체(주로 체언)을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단어.
2. 형태 : 어간 + 어미의 형태(활용을 한다).
3. 동작이나, 모양, 상태/성질 등을 나타냄.
 -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 기본형에 현재형 선어말어미 (-ㄴ-/-는-) 부착!

1) 용언의 갈래

형태와 의미에 따라	동작, 작용 - 동사 / 상태, 성질 - 형용사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본용언 / 보조용언
활용의 규칙성 여부에 따라	규칙용언 / 불규칙 용언

2) 활용

- 활용 : 어간에 다양한 어미가 붙어 단어의 형태를 바꾸는 것
- 어간 : 활용시 변화하지 않는 부분
- 어미 : 활용시 변화하는 부분
- > 용언 외에 활용하는 낱은?
- > 피동, 사동, 강세의 접사가 붙는 말은 그 접사까지 포함하여 어간으로 본다.
 - 먹이다, 먹히다, 밀치다, 깨뜨리다

#어근(語根) 과 어미(語尾)

⇒ 어근은 접사의 상대 개념이며, 어간은 어미의 상대 개념이다.

①	먹	+	이	+	다	,	깨	+	뜨리	+	다
	어근		사동접사				어근		강세접사		어미
	└───┬───┘						└───┬───┘				
	어간			어미			어간			어미	

보조 용언과 본 용언의 구별

Note

용언과 용언이 이어질 때, 뒤의 용언(보조)이 앞의 용언(본)의 뜻을 도와주는 용언이 된다.
따라서 뒤의 용언을 단독으로 쓰면 문법에 어긋나서,
서술어가 될 수 없거나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다.

- 본용언 : 핵심적 의미, 자립 가능
- 보조용언 : 본용언의 뜻을 보완, 자립 불가능

예) 나는 밥을 먹고 잤다.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잠을) 잤다.

나는 철수를 따라가고 싶다. ┌ 나는 철수를 따라간다.(본)
 └ 나는 철수를 *싶다.(보조)

감상을 적어 둔다. ┌감상을 적는다.(본)
 └감상을 *둔다.(보조)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특성]

- 보조용언은 생략이 가능하다.
-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는 다른 말(부사 등)이 끼일 수 없다.
-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는 ‘-(어/아)서’가 첨가될 수 없다.
-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하나의 서술어다.

[구분하기 어려운 보조용언의 출제 패턴]

먹고 싶다, 보다 보니, 적어 둔다, 살아 왔다, 먹어 버렸다, 막아 내다

용언의 활용

- ① 규칙 ; 모습이 바뀌지 않거나,
바뀌어도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 (ㄱ) 축약 : 보 + 아 → 봐
 - (ㄷ) 탈락 ┌ ㄹ 탈락 : 울 + 는 → 우는, 울 + 오 → 우오
 └ ㄴ 탈락 : 쓰 + 어 → 써, 치르 + 어 → 치러

동사, 형용사의 어간 끝에 있는 ‘ㄹ’은 ‘ㄴ’앞에서 예외 없이 탈락하며 ‘으’는 모음과 만날 때 꼭 탈락한다.
- ② 불규칙 ;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불규칙적인 것.
 - (ㄱ)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 ┌ㅅ 불규칙 : 잇+어, 낫+아
 - ┌ㄷ 불규칙 : 듣+어, 긴+어, 걷+어
 - ┌ㅂ 불규칙 : 굽+어, 줍+어, 뚫+아
 - ┌ㄹ 불규칙 : 흐르+어, 나르+아
 - ┌우 불규칙 : 푸+어
 - (ㄴ)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 ┌여 불규칙 : 일하+어, 사랑하+어
 - ┌러 불규칙 : 푸르+어, 이르+어
 - ┌너라 불규칙 : -아라/-어라 → 너라 (오다)
 - (ㄷ) 어간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 ㅎ 불규칙 형용사 : 파랗+아, 빨갱+아

[제5~6강 기본개념 점검 확인문제]

1. 밑줄 친 부분이 보조용언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 (a) 나는 그렇게 살아 왔다.
- (b) 나도 좋은 영화를 많이 보고 싶다.
- (c) 나는 남은 음식을 봉투에 싸서 버렸다.
- (d) 드라마를 보다 보니 밤이 되었다.

2. 다음 밑줄 친 명사 중에서 성질이 다른 하나는?

- ① 민수는 사람과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 ② 나는 부산에서 태어났다.
- ③ 불타버린 남대문은 국보 제1호이다.
- ④ 나는 세종대왕을 존경한다.
- ⑤ 멀리 남산을 바라보며 꿈을 키운다.

3. (가), (나)에 쓰인 '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오렌지는 귤과 다른 과일이다. / (나) 유이는 오렌지와 귤을 먹었다.

- ① (가)의 '와'와 (나)의 '와'는 같은 기능을 한다.
- ② (가)의 '와'와 (나)의 '와'는 품사가 다르다.
- ③ (가)의 '와'는 비교, (나)의 '와'는 접속의 기능을 한다.
- ④ (가)는 문장의 분리가 가능하고, (나)는 분리할 수 없다.

4. <보기>의 ㉠~㉣의 구체적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용언 중에는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지 않을뿐더러 그 현상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며, 이러한 용언을 '불규칙 용언'이라고 한다. 불규칙 용언에는 '잇고, 잇지, 이어, 이어서', '돕고, 돕지, 도와, 도와서' 등으로 활용하는 용언인 '잇다', '돕다'와 같이 ㉠어간이 바뀌는 것, '하고, 하지, 하여, 하여서', '이르고, 이르지, 이르러, 이르러서 [至]' 등으로 활용하는 용언인 '하다', '이르다 [至]'와 같이 ㉡어미가 바뀌는 것, '하얏고, 하얏지, 하얏, 하얏서' 등으로 활용하는 용언인 '하얏다' 와 같이 ㉢어간과 어미 모두가 바뀌는 것이 있다.

- ① ㉠: 깨닫다
- ② ㉡: 눕다
- ③ ㉢: 일꾼다
- ④ ㉣: 푸르다
- ⑤ ㉤: 파랗다

[7강] 단어의 형성 - 합성어, 파생어

Note

[합성어, 파생어의 패턴 파악]

구 분		출제 개념어	기억해야 할 패턴
합성어	의미상 구분	대등	- and로 연결되는 낱들 (남녀, 여닫다 등) · 명사+명사→'와/과'를 넣었을 때 의미변화 없음 · 동언+동언→'고'로 연결했을 때 의미변화 없음
		종속	- and로 연결되지 않는 낱들 (돌다리, 국밥 등) · 명사+명사→'와/과'를 넣었을 때 의미가 다름 · 동언+동언→'고'로 연결했을 때 의미가 다름
		융합	- 사전적 의미를 무시하고 완전 다른 의미로 거듭난 합성어 (삼추=이견세, 광음=세월, 모순=알다가 맞지 않음 등)
	형태상 구분	비통사적 합성어	- 어미가 생략되고, 용언의 어간만 남은 합성어 - 부사+체언으로 구성된 합성어 - 어순이 우리말 어순과 다르게 결합된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 외 나머지	

[합성어, 파생어의 패턴 파악]

구 분		출제 패턴	기억해야 할 패턴
파생어	품사 변경여부로 구분	뜻+	주로 접두사, 접미사 중 품사 못 바꾸는 낱
		품사 변경	주로 접미사 (명+이→명이)
	품사 변경여부로 구분	문장구조 변경	사동, 피동 접사 (이,히,리,기,우,구,추)
		문장구조 변경+품사변경	사동, 피동 접사가 결합된 형용사 중 (예 : 놀다 → 놀이다)

1. 단어의 형성

(1) 파생법에 의한 단어의 형성

1) 어근과 접사

- ① 어근 -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
- ② 접사 -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거나, 어근의 품사를 바꿔주는 형식 형태소.
 - (ㄱ) 위치에 따라
 - ┌ 접두사 - 어근의 앞에 붙는 것. 예 맨손, 덧버선
 - └ 접미사 - 어근의 뒤에 붙는 것. 예 덮개, 지붕(집 + 을)
 - (ㄴ) 기능에 따라
 - ┌ 한정적(同種的) 접사 - 품사는 그대로 두고 어근의 뜻만 제한하는 것. 예 집 + 을, 덧 + 버선
 - └ 지배적(異種的) 접사 - 품사를 바꾸는 접사.
 - 예 덮개(동→명), 사람답다(명→형)

2) 접두사에 의한 단어의 파생

- ① 뒤에 오는 어근의 의미를 제한할 뿐이고 품사를 바꾸지 못함. (한정적 접사)
- ② 관형사성 접두사(명사 앞에 붙는 것) 와 부사성 접두사(용언 앞에 붙는 것)가 붙어서 파생됨.
 - 예 갓스물, 개소리, 애호박, 맨손, 들뉘다, 시퍼렇다, 설익다, 깎보다

3) 접미사에 의한 단어의 파생

- ① 명사로 파생됨
 - ┌ 명사 + 접미사 : 송아지, 선생님, 김씨, 목+아지
 - └ 동사형용사 어근 + 접미사(-으)ㅁ, -이, -기, -개, -애) : 슬픔, 물음, 벌이, 크기, 쓰기, 지우개, 막+애
- ② 동사로 파생됨
 - ┌ 동사 어근 + 접미사(치, 이, 히, 리, 기) : 놓치다, 먹이다, 잡히다, 벌리다, 남기다
 - | 명사 + 접미사(-하) : 위반하다
 - | 부사 + 접미사(-거리, -하) : 꿈틀거리다, 철령거리다, 더하다
 - └ 형용사 어근 + 접미사 : 밝히다, 녹이다, 높이다, 낮추다, 늦추다, 넓히다
- ③ 형용사로 파생됨
 - ┌ 형용사 어근 + 접미사 : 깜+알다, 높다랄다, 동그랄다
 - | 명사 + 접미사 : 가난하다, 학생답다, 슬기롭다, 값지다, 기름지다
 - | 자연스럽다
 - | 부사 + 접미사 : 차근차근하다, 보들+알다
 - | 관형사 + 접미사 : 새롭다
 - └ 동사 어근 + 접미사 : 얇+브다, 믿+엎다
- ④ 부사로 파생됨
 - ┌ 동사 어근 + 접미사 : 맞+우, 넘+우, 참+아, 비롯+오>비로소
 - | 형용사 어근 + 접미사 : 잣+우, 많이, 깨끗이, 높이, 다르+이>달리,
 - | 급히, 없이, 건강히
 - | 부사 + 접미사 : 곳곳이, 집집이, 더욱이, 일찍이
 - └ 명사 + 접미사 : 정성껏, 힘껏, 진실로, 정말로

⑤ 조사로 파생됨

- └ 동사 어근 + 접미사 : 좇+아, 붙+어
- | 형용사 어근 + 접미사 : 같이
- └ 명사 + 조사 : 밖에

Note

접미사의 표기

받침이 있는 어근 아래에 모음으로 된 접미사가 붙을 때는
 ㄱ.원형을 밝힐 수도 있고 예) 많이, 없이, 물음, 벌이
 ㄴ.원형을 밝히지 않고 이어 적기도 함. 예) 모가지, 마주

동사(의 명사형) 와 (파생) 명사의 구분

‘-(으) ㅁ, -기’

1. 서술성이 없거나,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면 (파생) 명사.
 예) 다음 보기에서, 좋은 그림은 비싸다.
2. 주어에 대한 서술성이 있거나,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면 동사(의 명사형).
 예) 나 보기가 역겨워, 복잡한 것을 빨리 그리기는 어렵다.

(2) 합성법에 의한 단어의 형성

1) 합성법의 유형

- ① 통사적 합성법 : 우리 말의 일반적 단어 배열과 같은 유형의 합성.
 (명+명, 관형어+명, 주어+서술어, 부사어+서술어....)
 예) 돌다리, 작은형, 힘들다, 앞서다
- ② 비통사적 합성법 : 우리 말의 일반적 단어 배열에 어긋나는 합성.
 (용언의 어근 + 명사)
 예) 묵밭(묵은 밭), 늦더위(늦은 더위), 부슬비, 날뽀다, 굳세다

비통사적 합성어 총정리

1. 용언과 체언이 어미 없이 연결
2. 용언과 용언이 어미 없이 연결
3. 부사가 체언 앞에 위치
4. 우리말 어순과 다른 방식

e.x) 늦잠, 덮밥, 여닫다, 우짚다, 부슬비, 독서, 급수, 등산

2) 합성어의 의미상 갈래

- ① 병렬(대등)관계 : 두 단어나 어근이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대등한 자격으로 연결된 말.
 예) 말 + 소 > 마소, 높푸르다, 오가다
- ② 유속(종속)관계 : 두 단어나 어근이 본래의 의미를 가지되, 서로 주종 관계로 연결된 말
 예) 국 + 밥 > 국밥, 소나무, 돌다리, 돌아보다
- ③ 융합관계 : 두 단어나 어근의 뜻이 없어지고 하나의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말.
 예) 밤 + 낮 > 밤낮(늘), 춘 + 추(나이), 세 + 월(시간)
 광 + 음(시간), 돌아 + 가다(죽다)

접미사 ‘-장이’와 ‘-쟁이’

1. 기술자에게는 ‘-장이’ 예) 미장이, 땀장이, 갓장이, 양복장이
2. 성질, 행동, 모양의 뜻에는 ‘-쟁이’ 예) 멧쟁이, 심술쟁이, 얇은뱅이

3) 합성어의 파생

- 합성어에 다시 접사를 붙여 새로운 파생어를 만들기도 함.
- 예) (해+돋)+이, (품+값)+음, (뽕이+치)+기, (나+들)+이, (다+달)+이
 되+(돌아+가다), (소금+굽)+이, (틈+틈)+이

[8강] 품사, 단어의 형성 실전문제 & 기출문제

[형태소, 품사(단어) 실전 연습문제]

1. <보기>를 참고할 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 우리말의 합성어 중에는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산나물’, ‘작은집’, ‘들어가다’는 우리말에서 흔히 나타나는 단어 배열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 생 : 네. ‘산나물’, ‘작은집’, ‘들어가다’는 각각 ‘명사 + 명사’,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 ‘용언의 연결형 + 용언’으로서 우리말에서 흔히 나타나는 단어 배열법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 : 그래요. 이렇듯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따른 합성어들을 우리는 통사적 합성어라고 해요. 한편 ‘용언의 어간 + 명사’, ‘용언의 어간 + 용언’, ‘부사 + 명사’는 우리말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에 어긋나는 합성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말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에서는 용언의 어간과 명사, 용언의 어간과 용언 사이에는 어미가 개입되어야 하고, 부사는 일반적으로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를 꾸며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점을 감안하여 비통사적 합성어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할까요?

- ① ‘척척박사’는 ‘부사 + 명사’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② ‘뉘뉘’는 ‘용언의 어간 + 명사’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③ ‘접칼’은 ‘용언의 어간 + 명사’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④ ‘검붉다’는 ‘용언의 어간 + 용언’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⑤ ‘스며들다’는 ‘용언의 어간 + 용언’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2. <보기>에서 언급한 ‘품사의 통용’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의 아홉 품사는 각 부류에 소속되는 단어들의 문법적 성질이 일정하다고 생각하고 분류한 것이다. 그런데 단어 가운데는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 범주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

- 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나도 그 사람만큼 뿔 수 있다.
- ②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열 번 짚어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 ③ 오늘은 달이 매우 밝다. / 벌써 날이 밝는다.
- ④ 다섯까지는 필요 없고 셋이면 되겠는데. 고구마가 다섯 가마니에 좁쌀이 두 가마니였다.
- ⑤ 비 온 뒤라 그런지 앞산이 한결 더 푸르러 보인다. 푸른 공기를 들이마셨다.

5.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가 아닌 것은?

< 보 기 >

대명사 중에는 한 문장 안에서 앞서 나온 체언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를 가리켜 재귀 대명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철수는 자기가 가겠다고 나섰다.”에 쓰인 ‘자기’는 앞서 나온 체언인 ‘철수’를 다시 나타내기 위해 쓰인 재귀 대명사이다. 그런데 ㉠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재귀 대명사와 일반적인 대명사 둘 다로 쓰이는 것들도 있어서 이를 문맥을 고려하여 잘 구분해야 한다.

- | | |
|---|--|
| 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께서 <u>저도</u> 함께 오라고 하셨어요. ● 소년은 <u>저도</u> 모르게 자리에 주저앉았다. |
| 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님께서 <u>저희</u> 때문에 고생하시는군요. ● 동생들은 내가 <u>저희</u> 때문에 밥을 차린 줄 안다. |
| ③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에 <u>너희</u>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다. ● 누나가 <u>너희</u>는 모두 집에 있으라고 말했다. |
| ④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보, 언제나 <u>당신</u>의 말에 귀를 기울일게요. ● 할머니께서는 생전에 <u>당신</u>의 장서를 아끼셨다. |
| 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유리창을 깬 사람은 <u>제가</u> 아닙니다. ● 그 꼬마는 <u>제가</u> 궁금한 것을 선생님께 여쭙었다 |

6. <보기>의 ㉡~㉤에 대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조사 중에는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게 하는 조사도 있다.
 ㉢ 조사 중에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도 있다.
 ㉣ 조사는 앞말의 음운 환경에 따라 달리 선택되기도 한다.
 ㉤ 둘 이상의 조사가 결합하여 쓰이기도 한다.
 ㉤ 조사는 구나 절 단위에 결합할 수도 있다.

- ① ㉡: 누나가 어머니의 선물을 사고 있다.
 ② ㉢: 개나리와 진달래를 아빠랑 내가 심었다.
 ③ ㉣: 그녀는 학원에 가지 않고 친구에게 갔다.
 ④ ㉤: 아이에게도 아이만의 비밀이 있는 법이다.
 ⑤ ㉤: 나는 골목과 마당을 서성이며 형이 오기를 기다렸다.

7.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기 1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

㉠ 그는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잡을 수 없다. / 나는 그가 잠들기를 바랐다.

-기 2 「접사」

(일부 동사나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 그녀는 달리기 시합에 출전했다. / 이 펜은 굵기 조절이 가능하다.

- ① ‘-기1’의 뒤에는 보조사가 올 수 있는 반면에 ‘-기2’는 뒤에 보조사가 올 수 없다.
- ② ‘-기1’은 선어말 어미를 활용해 시제를 드러낼 수 있는 용례가 가능하지만 ‘-기2’는 선어말 어미를 활용해 시제를 드러낼 수 있는 용례가 가능하지 않다.
- ③ ‘-기1’의 ‘달리기’는 주어 ‘그는’과 어울려 하나의 절을 이루는 반면에 ‘-기2’의 ‘달리기’는 주어 ‘그녀는’과 어울려 절을 이루지 않는다.
- ④ ‘-기1’은 용언의 활용형의 일부로 그 말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 반면에 ‘-기2’는 접사로 원래 단어의 품사를 바꾼다.
- ⑤ ‘-기1’의 용례인 ‘달리기’는 사전의 표제어가 되지 못하는 반면에 ‘-기2’의 용례인 ‘달리기’는 사전의 표제어가 될 수 있다.

8.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파생 접사는 어근의 앞에 붙는 접두사와 어근의 뒤에 붙는 접미사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접두사는 원래 단어의 품사를 바꿀 수 없지만 접미사는 원래 단어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또한, 접미사가 결합하여 피동이나 사동의 의미를 갖는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파도의 ㉠높이를 재다.		방의 온도를 ㉡높이다.
그는 ㉢높이 뛰었다.	높다	그의 사기를 ㉣드높이다.
벽이 ㉣높다랴다.		가을 하늘이 ㉣드높다.

- ① 같은 형태의 ‘-이’가 결합했더라도 ㉠과 ㉢의 품사는 서로 다르구나.
- ② ㉠의 접미사는 원래 단어의 품사를 바꾸어 주지만 ㉡의 접미사는 그렇지 않구나.
- ③ ㉢의 ‘-다랴-’과 ㉣의 ‘드-’는 모두 원래 단어의 품사를 바꾸어 주지 않는구나.
- ④ ㉣에서는 어근에 결합하는 접두사와 접미사를 모두 확인할 수 있구나.
- ⑤ ㉡과 ㉣의 ‘-이-’는 사동의 의미를 더해 주는 접사이구나.

9. <보기>를 참고하여 단어를 분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어간은 용언의 활용 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근은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의미상 중심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그런데 동일한 요소가 어간으로도 쓰이고 어근으로도 쓰인다. 예를 들어 ‘놀-’은 ‘놀다’의 어간이기도 하면서 파생어인 ‘놀리다’의 어근이기도 하다. 이때 ‘놀리다’의 어간은 ‘놀리-’이다. 또한 합성어인 ‘뛰놀다’의 어근은 ‘뛰-’, ‘놀-’이지만 어간은 ‘뛰놀-’이 된다.

- ① ‘깨우다’의 어근은 ‘깨-’이고 어간은 ‘깨우-’이다.
- ② ‘되찾다’의 어근은 ‘되-’이고 어간은 ‘되찾-’이다.
- ③ ‘붙잡다’의 어근은 ‘붙-’, ‘잡-’이고 어간은 ‘붙잡-’이다.
- ④ ‘먹-’은 ‘먹다’의 어간이기도 하면서 파생어인 ‘먹이다’의 어근이기도 하다.
- ⑤ ‘끓이다’의 어근은 ‘끓-’, 어간은 ‘끓이-’이고, ‘애끓다’의 어근은 ‘애’, ‘끓-’, 어간은 ‘애끓-’이다.

10. <보기>의 ㉠에 해당하는 단어가 쓰인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합성어의 구성에서 명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 명사는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나는 시금치가 들어간 김밥을 좋아한다.’라는 문장에서 ‘김밥’이 그러하다. 그런데 때로는 ㉠명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 부사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그녀의 거짓말을 어제오늘 겪은 것이 아니다.’에서 ‘어제오늘’이 그러하다.

- ① 그는 밤낮 놀 생각만 한다.
- ② 촉촉한 봄비 소리도 우리를 즐겁게 한다.
- ③ 그는 보기와는 다르게 노래를 곧잘 한다.
- ④ 심판은 규칙을 잘못 적용하였다.
- ⑤ 친구들이 한바탕 법석을 떨었다.

11.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 중 부사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접미사 ‘-적(的)’이 붙은 파생어는 대개 관형사가 되거나 명사가 되고 드물게는 부사가 된다. 관형사임은 체언을 꾸며 주는 것으로 알 수 있고, 명사임은 조사가 결합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부사임은 용언 서술어나 다른 부사어를 꾸며 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 그의 견해는 오직 ㉠수학적 관점만 고려한 것이다.
- 그 가게에서는 학용품을 ㉡비교적 저렴하게 팝니다.
- 그들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 ㉣가급적 식사를 집에서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 유령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심리적인 현상이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12. <보기>의 ㉠~㉤ 중 두 가지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닌 것은?

< 보 기 >

국어의 보조사는 체언의 문장 성분을 직접적으로 알려 주는 격 조사와는 다르다. 보조사는 앞 말이 어떤 문장 성분인지를 알려 주는 기능은 없고 단지 특수한 의미만 덧붙이는 기능을 한다. 보조사가 출현하는 양상은 다음 네 가지 경우로 요약할 수 있다.

- ㉠ 보조사의 앞뒤로 격 조사가 붙지 않은 경우
- ㉡ 보조사의 앞에 격 조사가 붙은 경우
- ㉢ 보조사의 뒤에 격 조사가 붙은 경우
- ㉣ 보조사가 체언 이외에 부사, 어미 등에 붙은 경우

- ① 너까지 우리를 믿지 못하다니 무척이나 실망스럽다
- ② 선생님께서 나에게는 그 일을 맡기지도 않으셨어.
- ③ 엄마는 막내마저 시집을 가고 나니 눈물이 나왔다.
- ④ 너만을 예외로 해 달라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다.
- ⑤ 이번에는 진주도 수학 경시 대회에 나간다고 한다.

13.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용언 어간에 붙는 명사형 어미 ‘-(으)ㄴ’, ‘-기’와 명사 파생접미사 ‘-(으)ㄴ’, ‘-기’는 형태가 같다. ㉠명사형 어미 ‘-(으)ㄴ’, ‘-기’가 붙은 말은 어간의 원래 품사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명사 파생 접미사 ‘-(으)ㄴ’, ‘-기’가 붙은 말은 명사가 된다. 용언은 주어나 목적어 등의 필수 성분을 가져야 하며 어말 어미 앞에 선어말 어미가 올 수 있으며 부사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명사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앞의 경우와 뒤의 경우를 구별할 수 있다

- ① ㉠ : 나는 결승전을 보기 위해 표를 예매했다.
 ㉡ : 그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밤을 새웠다.
- ② ㉠ : 그가 범인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 : 토끼는 더 빨리 달리기가 어려웠다.
- ③ ㉠ : 우리 아버지는 테니스 치기를 좋아하신다.
 ㉡ : 형님은 담배를 끊음으로써 건강을 지키셨다.
- ④ ㉠ : 그 화가는 전원적인 그림을 많이 남겼다.
 ㉡ : 공손한 말하기는 언어 예절의 기본이다.
- ⑤ ㉠ : 형이 우리 학교의 걷기 대회에서 우승했다.
 ㉡ : 할머니께서는 매일 꽃을 꾸신다고 한다.

14. 다음 ㉠~㉢에 해당하는 예가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는 어근과 접사로 나눌 수 있다. 어근과 접사는 복합어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즉 복합어를 둘로 나누었을 때 그 둘이 모두 어근에 해당하면 합성어가 되고 둘 중 하나가 접사이면 파생어가 된다. 합성어의 가장 단순한 구조는 ‘어근+어근’으로 된 것이고, 파생어의 가장 단순한 구조는 ‘접두사+어근’ 또는 ‘어근+접미사’로 된 것이다.

그런데 합성어나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의 결합 방식에 따라 좀 더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어근과 접사가 셋 이상 결합하여 합성어나 파생어를 이룰 때 그러하다. 가령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어근’이 결합된 것, ㉠‘어근’과 ‘어근+접미사’가 결합된 것, ㉡‘어근+접미사’와 ‘어근’이 결합된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파생어도 ㉢‘어근+어근’에 ‘접미사’가 결합된 것, ‘접두사+어근’에 ‘접미사’가 결합된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	㉡	㉢
①	비빔밥	바닷물고기	찜질
②	바닷물고기	찜질	눈가리개
③	눈가리개	비빔밥	나들이
④	찜질	나들이	비빔밥
⑤	나들이	눈가리개	바닷물고기

[품사, 단어의 형성 평가원 / 사관1차 / 교육청 최근기출 집중분석]

1. <보기>는 한글 맞춤법 제1항이 파생어와 합성어에 적용된 예를 찾아본 것이다.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2016 수능B]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합을 원칙으로 한다.

	파생어	합성어
㉠만 충족한 경우	㉠	㉡
㉡만 충족한 경우	㉢	㉣
㉠, ㉡ 모두 충족한 경우	㉤	줄자(줄 + 자), 눈물(눈 + 물)

- ① ㉠ : 이파리(잎 + 아리), 얼음(얼 + 음)
- ② ㉡ : 마소(말 + 소), 낮잠(낮 + 잠)
- ③ ㉢ : 웃음(웃 + 음), 바가지(박 + 아지)
- ④ ㉣ : 웃소매(웃 + 소매), 밥알(밥 + 알)
- ⑤ ㉤ : 꿈꾸(꿈 + 꾸), 사랑니(사랑 + 이)

2. 다음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 수능A]

선생님 : 지금까지 형태소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 특성에 대해 공부했지요? 그럼, 다음 자료에서 밑줄 친 말들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 하늘은 맑고 바다는 푸르다.
- 그의 말은 들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 나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놓아주었다.

학 생 : 밑줄 친 말들은 모두

- ①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군요.
- ②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 ③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고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는군요.
- ④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 ⑤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군요.

3.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6 9월 모평A]

국어에서는 의존 명사가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수효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립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사람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수도 있다.

- 의존 명사 : 그 아이는 올해 아홉 살이다.
- 자립 명사 : 그는 사람을 부리는 재주가 있다.
-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
: 친구 다섯 사람과 함께 도서관에 갔다.

- ① 이 글에는 여러 군데 잘못이 있다.
- ② 앉은자리에서 밥 두 그릇을 다 먹었다.
- ③ 시장에서 수박 세 덩어리를 사 가지고 왔다.
- ④ 할아버지께서는 밥을 몇 숟가락 겨우 뜨셨다.
- ⑤ 나는 서너 발자국 뒤로 물러서다가 냅다 도망쳤다.

4.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6월 모평A]

<보기>

단어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면서 ㉠중심적 의미가 ㉡주변적 의미로 확장되어 다의 관계를 이루기도 한다. 일례로 자연과 관련된 단어가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중심적 의미로 쓰이다가 비유적으로 확장되어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 (가) 여름이 오기 전에 홍수를 대비한다.
- (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 (가)의 ‘홍수’는 중심적 의미로, (나)의 ‘홍수’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① ㉠ : 천체 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별을 관찰했다.
㉡ : 어제 물리학계의 큰 별이 졌다.
- ② ㉠ :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다.
㉡ : 그는 도망가는 데만큼은 정말 번개야.
- ③ ㉠ :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노력한다.
㉡ : 잡초가 다시 자라지 않도록 뿌리를 뽑았다.
- ④ ㉠ : 일출을 기다리는 우리 앞에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 : 그녀는 그가 자기 마음의 태양이라고 말했다.
- ⑤ ㉠ : 들판에는 풀잎마다 이슬이 맺혔다.
㉡ : 그녀의 두 눈에 맺힌 이슬이 뜨겁게 흘러내렸다.

5. <보기 1>을 참조하여 <보기 2>의 ㉠ ~ ㉣을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2 3월 교육청]

<보기 1>

인칭대명사는 지시 대상이 화자인지, 청자인지, 화자와 청자 이외의 제삼자인지에 따라 각각 일인칭, 이인칭, 삼인칭 대명사로 나뉜다. 이 중에 삼인칭 대명사에는 미지칭(未知稱) 대명사, 부정칭(不定稱) 대명사, 재귀대명사가 포함된다. 미지칭 대명사는 가리킴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를 때, 부정칭 대명사는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을 지칭할 때, 재귀대명사는 앞에 나온 삼인칭 주어를 지칭할 때 쓰인다.

<보기 2>

초인종이 울린다. “계세요?”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아 들 : ㉠ 누가 왔는지 ㉡ 제가 나가 볼게요. (현관으로 나가며) ㉢ 누구세요? (문을 열어 상대방을 확인한다.)

우체부 : 택배 왔습니다.

아 들 : (물건을 건네받아 확인하고) 할머니께서 ㉣ 당신이 손수 말리신 껏감을 보내셨네요. 아버지, 껏감 좀 맛보실래요?

아버지 : ㉤ 네가 먼저 먹으렴. 난 이따가 먹을란다.

- ① ㉠ : 부정칭 대명사 ② ㉡ : 일인칭 대명사
- ③ ㉢ : 미지칭 대명사 ④ ㉣ : 재귀대명사
- ⑤ ㉤ : 이인칭 대명사

6. <보기>는 문법 수업 중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요구에 가장 적절한 것은? [2007 10월 교육청]

< 보 기 >

선생님 : 부사는 일반적으로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합니다. 그런데 ‘의외로’와 같은 부사는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며 문장 내의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의외로’는 형태를 바꾸어서 서술어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부사를 찾아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볼까요? 다음 예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가. 의외로 그는 성실하게 일했다.
 그는 의외로 성실하게 일했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다, 의외로.

나. 그가 성실하게 일했다니 의외였다.

- ① 연우 :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 ② 세현 :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③ 서진 : 나는 눈밭에서 데굴데굴 굴렀다.
- ④ 정연 : 요새는 너무 바빠서 등산을 못 한다.
- ⑤ 은우 : 나는 배가 아파 이틀 동안 밥을 못 먹었다.

7. <보기>에서 제시한 ㄱ~ㄴ의 ‘복수 표시’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8 사관1차]

— < 보 기 > —

- ㄱ. 너희는 학교로 모여라. / 너희들은 학교로 모여라.
- ㄴ. 친구들이 병들을 모았다. / *음료수 세 병들이 깨졌다.
- ㄷ. *거기들에서 잠시 동안 기다려라. / 여기들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라.
- ㄹ. *세종대왕들이 한글을 창제했다. / 우리 학교는 세종대왕들을 길러내고 있다.
- ㅁ. *일과 이를 더하면 삼들이다. / *지고 이기고는 둘째들 치고 경기에 집중하자.

*는 비문임.

- ① ㄱ : 복수의 의미를 갖는 2인칭 대명사의 경우 복수 표시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② ㄴ : 명사가 단위로 쓰인 경우 복수 표시를 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군.
- ③ ㄷ : 가까운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의 경우 복수 표시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④ ㄹ : 고유 명사가 보통 명사로 쓰인 경우 복수 표시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ㅁ : 체언 중에서 수사의 경우 복수 표시를 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군.

8.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2017 6월 평가원]

<보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되는데, 어근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둘로 나눌 수 있다.

- 통사적 합성어 :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
- ㉠ 비통사적 합성어 :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다른 합성어

- 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 ② 서로 몰라볼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다.
- ③ 저마다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④ 지난달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자신감이 생겼다.
- ⑤ 망치질을 자주 하다 보니 손바닥에 굳은살이 박였다.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접미사는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어간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눅다’의 어근 ‘눅-’에 접미사 ‘-아’가 붙어 새로운 어간 ‘눅아’가 형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눅이다’의 어간 ‘눅아’는 ‘눅다’의 어간 ‘눅-’과 구별된다. 둘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예를 들면, 명사 ‘먹이’나 ‘넓이’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단어이다. 이때 ‘먹이’와 ‘넓이’의 ‘먹-’과 ‘넓-’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셋째로, ㉠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동사 ‘익다’와 ‘먹다’의 어근에 각각 접미사 ‘-하-’와 ‘-아-’가 붙어 형성된 ‘익히다’와 ‘먹이다’는 ‘고기를 익히다.’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에서와 같이 사동의 의미를 가진다.

넷째로, ㉡ 접미사는 타동사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안다’의 어근 ‘안-’에 접미사 ‘-가-’가 붙어 형성된 ‘안키다’는 ‘아기가 엄마한테 안키다.’와 같이 피동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는 ‘눅다’, ‘식다’와 같은 자동사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한편, 하나의 접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접미사 ‘-하-’는 ‘읽다’의 어근 ‘읽-’에 붙어 ‘읽히다’를 만들 수 있지만, ‘살다’의 어근 ‘살-’에는 붙지 못한다. 어근 ‘살-’에는 접미사 ‘-라-’가 붙어 ‘살리다’가 형성된다. 또한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 들 수 없다. 가령, 어근 ‘읽-’과 접미사 ‘-하-’ 사이에 ‘-사-’와 같은 선어말 어미가 끼어 든 ‘읽시하-’와 같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017 수능]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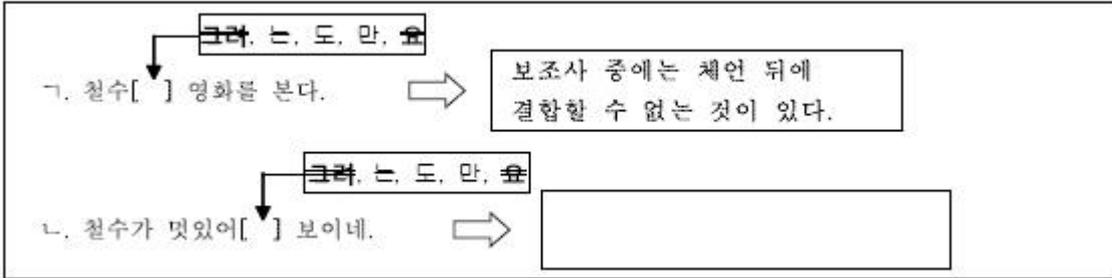
- ㉠ 달콤한 휴식을 위해 시간을 비워 놓았다.
- ㉡ 아주 높이 나는 새라야 멀리 볼 수 있다.
- ㉢ 마을 앞 공터를 놀이 공간으로 조성했다.
- ㉣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위해 차를 끓였다.
- ㉤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일찍 오시기 힘들다.

- ① ㉠에서 ‘비워’의 어간은 ‘시간이 빈다.’에서 ‘비다’의 어간과 같다.
- ② ㉡에서 ‘높이’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명사이다.
- ③ ㉢에서 ‘놀이’는 명사이므로 ‘놀이’ 속의 ‘놀-’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 ④ ㉣에서 ‘끓였다’의 어근에 붙은 접미사 ‘-아-’는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한다.
- ⑤ ㉤에서 ‘오시기’는 ‘오-’와 ‘-기’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끼어 든 것이므로 명사이다.

10. <보기>는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이 정리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사관1차]

< 보 기 >

선생님 : 자, 이번에는 보조사의 쓰임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의 용례 위에 글상자가 있습니다. 이 글상자는 보조사가 용례의 []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표 오른쪽 글상자는 왼쪽의 용례에서 알 수 있는 보조사가 결합되는 특징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ㄱ의 예시를 보고 ㄴ의 빈 글상자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 ① 보조사 중에는 동사에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 ② 보조사 중에는 서술어에만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 ③ 보조사 중에는 연결 어미에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 ④ 보조사 중에는 종결 어미에만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 ⑤ 보조사 중에는 보조 형용사 뒤에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11. <보기>의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사관1차 기출 변형]

< 보 기 >

우리말에서 반의 관계의 종류는 '상보 반의', '방향 반의', '정도 반의'로 나눌 수 있다. ㉠ '상보 반의'는 '남자 : 여자'처럼 개념적 영역이 상호 배타적인 반의 관계이고, '방향 반의'는 '오다 : 가다'처럼 방향상의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반의 관계이며, 마지막으로 '정도 반의'는 '차다 : 뜨겁다'처럼 정도나 등급을 나타내는 반의 관계이다.

- ① 참 : 거짓
- ② 크다 : 작다
- ③ 왼쪽 : 오른쪽
- ④ 쉽다 : 어렵다
- ⑤ 오르다 : 내리다

12. <보기>는 언어의 특성을 설명하는 사례이다. <보기>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언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관1차 기출 변형]

< 보 기 >

바다를 '바다'라고 부르지 않고 혼자서 '하늘'이라고 한다든지 '땅'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 ① 언어의 규칙성
- ② 언어의 분절성
- ③ 언어의 사회성
- ④ 언어의 역사성
- ⑤ 언어의 창조성

13.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에서 비통사적 합성어를 모두 고른 것은? [사관1차 기출 변형]

<보기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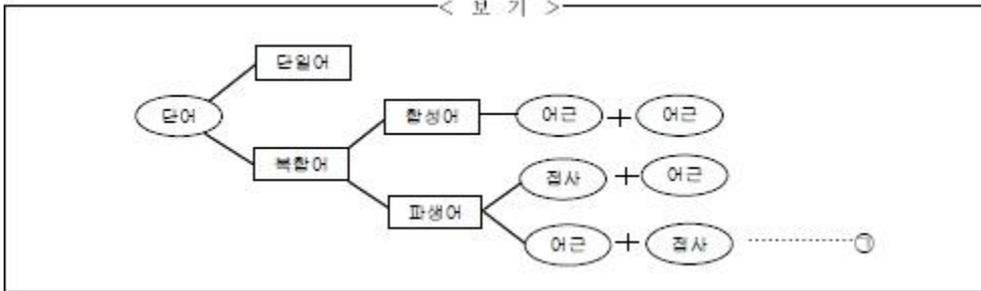
우리말 합성어 중에는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맞는 통사적 합성어와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서 벗어난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다.

< 보기 2 >

㉠ 굶주리다 ㉡ 기와집 ㉢ 덮밥 ㉣ 들어가다 ㉤ 작은집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14. <보기>의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2 사관1차]



- ① 군소리
- ② 나무꾼
- ③ 멧쟁이
- ④ 바느질
- ⑤ 지우개

15. <보기1>을 참고하여, <보기2>에서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3 사관1차]

< 보 기 1 >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며, 이러한 활용을 하는 용언을 불규칙 용언이라고 한다. 불규칙 활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	[기본형]	[활용]
• 어간이 바뀌는 경우	묻다	묻고, 물어(← 묻 + 어) ……
• 어미가 바뀌는 경우	누르다	누르고, 누르러(← 누르 + 어) ……
•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	하얏다	하얏고, 하얘(← 하얏 + 아) ……

< 보 기 2 >

ㄱ. 걸어서 도착한 무진은 안개로 가득 차 있었다.

ㄴ. 선생님이 웃는 표정을 지어서 분위기가 좋아졌다.

ㄷ. 신록이 길어지니 멀리 있는 산이 푸르러 보이는구나.

ㄹ. 한 십 년쯤 세월이 흘러 우리가 만난다면 어떤 모습일까?

ㅁ.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굴이 빨개서 듣는 말에 대답도 못 한다.

- ① ㄱ의 ‘걸어서’는 기본형이 ‘걷다’이므로 어간이 바뀐 경우이군.
- ② ㄴ의 ‘지어서’는 기본형이 ‘짓다’이므로 어간이 바뀐 경우이군.
- ③ ㄷ의 ‘푸르러’는 기본형이 ‘푸르다’이므로 어미가 바뀐 경우이군.
- ④ ㄹ의 ‘흘러’는 기본형이 ‘흐르다’이므로 어미가 바뀐 경우이군.
- ⑤ ㅁ의 ‘빨개서’는 기본형이 ‘빨갳다’이므로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뀐 경우이군.

16.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例)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관1차 기출 변형]

<보 기>

[조건1]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조사
 [조건2]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

		[조건1]	[조건2]
①	과	이 책은 내가 갖고 있는 것과 같다.	경숙과 민희는 여고 동창이다.
②	와	개는 늑대와 비슷하게 생겼다.	너와 내가 아니면 우리 조국을 누가 지키랴.
③	랑	저는 어머니랑 많이 닮았대요.	나는 영희랑 철수랑 영수를 우리 집에 초대했다.
④	하고	내 모자는 그것하고 다르다.	배하고 사과하고 감을 가져오너라.
⑤	이며	그림이며 조각이며 미술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웃이며 신이며 죄다 흩어져 있었다.

17. 밑줄 친 조사의 용법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경찰대 기출 변형]

- ① 구청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 ② 광주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됩니다.
- ③ 우리 학교에서 대민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 ④ 이번 체육대회는 부산 경찰서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 ⑤ 요양원에서 건강 달리기 대회를 열어 모두 즐거운 휴일을 보냈다.

18.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대 기출 변형]

<보 기>

조사는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 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격 조사는 결합하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조사이다. 문장에서 격 조사의 쓰임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① ‘우리 형은 대학생이다.’의 ‘이다’.
- ② ‘선생님께서 책을 읽어 주신다.’의 ‘께서’.
- ③ ‘신이시여, 저를 도와주소서.’에서 ‘이시여’.
- ④ ‘학교로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다.’에서 ‘로’.
- ⑤ ‘누나는 개나리하고 진달래를 좋아한다.’의 ‘하고’.

19. ㉠, ㉡에 들어갈 예를 바르게 묶은 것은? [2012 경찰대 기출]

<보 기>

어간이 ‘르’로 끝나는 용언은 모음 어미와 결합했을 때의 활용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르다’ 유형: -----㉠

·‘푸르다’ 유형: 이르다[ㅈ], 누르다[黃]

·‘부르다’ 유형: -----㉡

㉠

㉡

- | | |
|-------|-----|
| ① 치르다 | 나르다 |
| ② 구르다 | 치르다 |
| ③ 흐르다 | 구르다 |
| ④ 기르다 | 흐르다 |
| ⑤ 나르다 | 기르다 |

20. <보기>의 밑줄 친 단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대 기출 변형]

<보 기>

- ㄱ. 오늘은 달이 매우 밝다. - 이제 곧 날이 밝는다.
- ㄴ. 왕이여 만세를 누리소서. - 만세! 대한 독립 만세!
- ㄷ. 그 아이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
- ㄹ. 평생을 함께해서 행복하였다. - 그런 이야기는 평생처음 듣는다.
- ㅁ. 다른 생각 말고 공부나 해라. -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

- ① ㄱ의 ‘밝다’는 형용사이지만, ‘밝는다’는 동사로 쓰인 것이다.
- ② ㄴ의 ‘만세’는 명사이지만, ‘만세!’의 경우에는 감탄사로 쓰인 것이다.
- ③ ㄷ의 ‘열’과 ‘백’은 명사이지만, ‘열 사람, 백 말’의 ‘열’과 ‘백’은 관형사로 쓰인 것이다.
- ④ ㄹ의 ‘평생’은 목적어로 사용되었지만, ‘평생 처음’의 ‘평생’은 부사어로 쓰인 것이다.
- ⑤ ㅁ의 ‘다른 생각 말고’의 ‘다른’은 관형사이지만, ‘성격이 다른 사람’의 ‘다른’은 형용사로 쓰인 것이다.

21. <보기1>의 ㉠ ~ ㉢에 대한 <보기2>의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사관1차 변형]

<보기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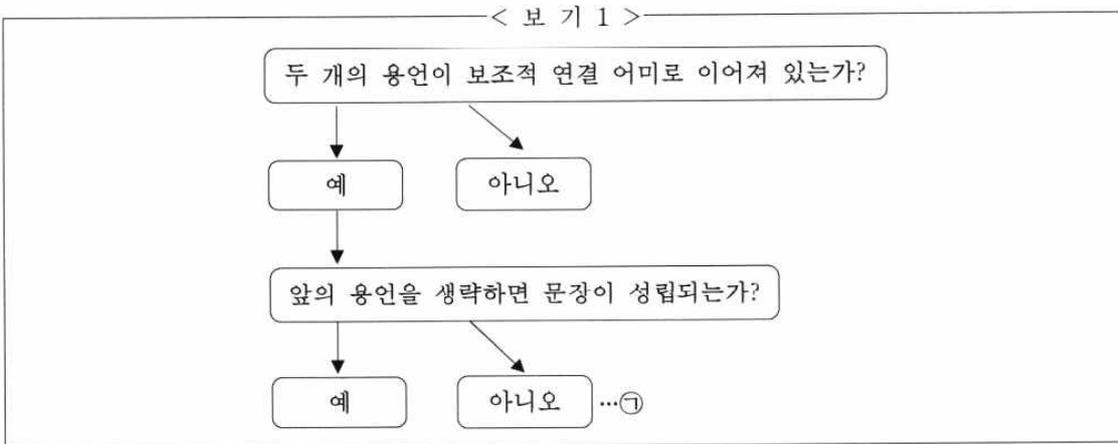
- 나는 눈을 감은 ㉠채로 고향을 생각했다.
- 그는 부모님께 이불 두 ㉡채를 선물로 보냈다.
- 어머니께서는 ㉢채 날이 밝기도 전에 집을 나섰다.
- 그녀는 항상 당근은 ㉢채를 썰어서 기름에 볶아 먹었다.

<보기2>

- a. ㉠, ㉡, ㉢은 체언이다.
- b. ㉠, ㉡은 수식어가, ㉢은 피수식어가 필요하다.
- c. ㉠, ㉢은 ㉡과 달리 조사와의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 d. ㉢은 ㉢과 달리 문장 안에서 결합하는 단어에 따라 품사가 달라진다.

- ① a, b ② a, c ③ a, d ④ b, c ⑤ c, d

22. <보기1>의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구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2>의 a~d 중에서 <보기1>의 ㉠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2014 사관1차 기출]



< 보 기 2 >

- 그 종이는 휴지통에 잘 ㉠ 찢어 버려라.
- 나도 책을 많이 ㉡ 읽고 싶다.
- 잠은 집에 ㉢ 가서 자야지.
- 그것만 좀 더 ㉣ 먹어 보자.

- ① a, b ② a, c ③ a, d ④ b, c ⑤ b, d

[9강] 문장성분 출제경향 및 개념

[문장성분의 패턴 파악]

Note

문장성분		문장성분의 형태	기억해야 할 출제 패턴
주성분	주어	체언+격조사(보조사)	보조사가 붙어 있는 경우의 주어 파악
	목적어	체언+격조사(보조사)	보조사가 붙어 있는 경우의 목적어 파악
	보어	체언+격조사	서술어 '되다 / 아니다'
	서술어	용언, 체언+격조사	서술격조사의 활용형태, 서술어 자릿수
생략불가	필수부사어	체언+격조사, 부사(~게)	서술어 자릿수와 연계하여 이해 필수적 부사어 감 잡기
	관형어	-	의존명사 또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일 때 - 단, 서술어자릿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부속성분	관형어	관형사, 체언+격조사	관형어 : 용언, 체언, 관형사
	부사어	부사, 체언+격조사	부사어 : 용언, 체언, 부사

1.문장의 성분

Note

(1) 문장 성분의 성립

1) 문장 성분의 갈래

① 주성분 :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필수적 성분.

┌주어 -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

| 서술어 -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말.

| 목적어 - '무엇을, 누구를'에 해당하는 말.

└보어 - '무어가'에 해당하는 말.

② 부속 성분 : 주성분의 내용을 꾸며주는 구실의 수의적 성분.

┌관형어 - 체언을 수식하는 말.

└부사어 - 용언을 한정하는 말.

③ 독립 성분 : 주성분이나 부속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그 문장에서 따로 떨어진 수의적 성분.

* 독립어 -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말.

(2) 주성분(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1) 주어 : 한 문장의 주체를 나타내며, 서술어에 대하여 '무엇이, 누가'라는 관계를 가짐.

① 주어의 성립 : 체언 + 주격 조사

② 주어는 서술어보다 생략이 잘됨. (특히 구어체에서)

③ 주어는 다른 성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예 할아버지께서는 시조를 잘 읽으셨었다. 저 사람은 너무 자기만 아껴.

④ '에서'는 단체적 의미를 띠는 무정 명사에 붙는다.

예 학교에서 , *3학년 학생들에서

2) 서술어 : 주어를 서술하는 말.

① 서술어의 성립 :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의 종결형으로 성립됨.

┌체언(명사구 또는 명사절) + 서술격 조사 ; 예 철수는 학생이다.

| 용언의 연결형 ; 예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오늘 행사는...

| 용언의 관형사형 ; 예 시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실을 몰랐다.

| 용언의 명사형 ; 예 총무공이 거북선을 만들었음이 ...

└서술절 ; 예 저 아이는 키가 작다.

② 서술어의 자릿수

(ㄱ) 한 자리 서술어 : 주어 한 자리만 필요로 함.(자동사, 형용사)

예 새가 운다. 꽃이 붉다.

(ㄴ) 두 자리 서술어 : 주어 이외에 또 하나의 필수적 문장 성분을 요구함.(타동사)

⇒ 주어+목적어/보어/필수부사어

예 나는 물을 마셨다. 물이 얼음이 된다.

그는 서울 지리에 밝다. 이곳의 기후는 농사에 적합하다.

(ㄷ) 세 자리 서술어 : 주어 이외에 두개의 필수적 문장 성분을 요구.

주격, 목적격 조사 이외의 격조사를 가진 문장 성분이 필요하다.

(수어 동사 - 주다, 보내다) ⇒ 주어 + 목적어 + 목적어/필수 부사어

예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순이가 나를 손을 잡아끈다.

필수적 성분의 부사어

- 서술어가 되는 용언의 특성에 따라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
- (ㄱ) '같다, 다르다, 비슷하다, 닮다, 틀리다, ...' 등은 '체언+과/와'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 예 이 그림이 실물과 똑같군요.
- (ㄴ) '널다, 드리다, 두다, 던지다, 다가서다, ...' 등은 '체언+에/에게'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 예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라.
- (ㄷ) 수여 동사는 목적어 이외에 '체언+에게'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 예 순이가 너에게 무엇을 주더냐?
- (ㄹ) '삼다, 변하다'는 '체언+(으)로'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 예 할아버지는 조카를 양자로 삼으셨다. 물이 얼음으로 변하였다.
- (ㅁ) 이외에도 특정 용언은 '체언+부사격조사'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 예 여기서, 다니다, 주다, 부르다, 하다, 못하다, 바뀌다, 속다, 제출하다, 맞다, 적합하다, 선출하다, 어울리다, (-으로) 만들다, 일컫다, (-이라) 이르다, (-와) 의논하다, (-에서) 살다

3) 목적어 : 행위의 대상('무엇을', '누구를')이 되는 말로 타동사로 표현된다.

- ① 목적어의 성립 : '을/를'이 붙으면 무조건 목적어 취급.
- ② 목적어의 겹침 - 한 문장에서 목적어가 하나 이상일 수도 있다.
 - 예 어머니께서 나에게 용돈을 천원을 주셨다.
 - (둘째 번 목적어가 첫째 목적어의 수량을 나타냄.)
 - 순이가 철수를 손을 잡아끈다.
 - (둘째 번 목적어가 첫째 목적어의 한 부분임.)
 - 그가 나를 더 좋은 것을 주었다.
 - (처소를 나타내는 말에 첫째 목적어가 별 의미 없이.)

4) 보어 : 완전하지 않은 문장을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보충하는 어절.

두 자리 서술어인 '되다, 아니다' 앞에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성분.
 ('주어+보어+서술어'의 구조를 지님. / 보격조사 '이/가')

(3) 부속 성분(관형어, 부사어)

Note

1) 관형어 : '어떤'에 해당하는 말.

- ① 관형어의 성립 : 관형사, 체언+(관형격 조사), 용언의 관형사형.
- ② 관형격 조사 '의'를 붙임. ⇒ '의'의 쓰임이 다양하다. 다의적이다.
- ③ 관형사형의 기능 :
 - (ㄱ) 시간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예 -는, -(으)ㄴ, -(으)ㄹ, -던
 - (ㄴ) 대체로 용언의 관형사형이 관형어가 될 때에는, 꾸밈을 받는 체언이 용언의 주어, 목적어, 부사어가 되고, 관형사형은 서술어가 된다.
예 빨간 장미를 ⇒ 장미가 빨갳다.
지은 시가 ⇒ 시를 지었다.
그가 태어난 1955년은 ⇒ 1955년에 태어났다.

④ 관형어의 특징 :

- (ㄱ) 부사어는 단독으로 쓰이나, 관형어는 단독으로 쓰이지 못함.
예 이것이 흰 신이나, 새 신이나? ⇒ *흰 , *새 (관)
천천히 갈까요, 빨리 갈까요? ⇒ 천천히 , 빨리 (부)
- (ㄴ) 부사어는 대체로 용언 앞에 놓이나, 관형어는 체언 앞에만 놓임.

⑤ 관형어의 겹침 :

- (ㄱ) '지시 관형어 → 수 관형어 → 성상 관형어'의 순서로 놓임.
예 저 두 젊은 남녀는 부부다.
- (ㄴ) 관형어 뒤에 체언으로 된 관형어(체언+'의')가 쓰일 때에는 반점(,)을 써서 꾸밈을 받는 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의문장 해소)
예 훌륭한, 우리나라의 부모님을 보시오.(부모님 수식)
훌륭한 우리나라의 부모님을 보시오.(우리나라 수식)

2) 부사어 : '어떻게'에 해당하는 말.

- ① 부사어의 성립 : 부사, 체언+부사격조사, 부사적 성격을 띤 의존 명사구
- ② 부사격 조사 : 처소, 도구, 자격, 지향점, 원인, 공동, ……
- ③ 부사어의 갈래 :
 - (ㄱ) 성분 부사어 - 특정한 성분을 수식하는 부사어.
예 어서 떠납시다. 너무 아프다. 아주 새 차다.
아주 많이 팔렸다. 겨우 셋이 덤비겠어.
 - (ㄴ) 문장 부사어 -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어. 말하는 이의 태도를 반영한다.
예 과연, 다행스럽게도, 확실히, 의외로
- ④ 부사어의 특징 :
 - (ㄱ) 보조사를 비교적 자유롭게 취함.
 - (ㄴ) 자리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으나 다른 부사어나 관형어, 체언을 꾸밀 때에는 어렵다.
 - (ㄷ) 부정 부사어('아니, 못')도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
 - (ㄹ) 관형어와는 달리, 주어진 문맥 속에서 단독으로 쓰인다.
예 이곳에 자주 오시나요, 가끔 오시나요? 가끔.

(4) 독립 성분 (독립어)

- 1) 독립어 : 한 문장 안에서 다른 문장성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성분.
- 2) 독립어의 성립
 - (㉠) 감탄사, 체언(유정명사) + 호격조사,
 - (㉡) 제시어(표제어), 접속 부사 ('및, 또는'은 제외)

예)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켜 때가 아닙니다.
 - (㉢) 명령어나 의지를 표현하는 말이 일어문(一語文) 을 만들 때.

예) 조용히! 어서! 싫어!
 - (㉣) 감탄사는 모두 독립어가 되나, 독립어가 모두 감탄사는 아니다.

Note

[사전 문제 해부하기(1) - 2016 수능 공통 14번]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같이[가치]

① ㉠

- ①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 ㉠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다
- ②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
- ㉡ 예상한 바와 같이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② ㉢

- ①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 ㉢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
- ②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 조사.
- ㉣ 새벽같이 떠나다

같이-하다[가치--] ㉣ 【(…과)…을】

- ① 경험이나 생활 따위를 얼마 동안 더불어 하다.
- =함께하다①.
- ㉣ 친구와 침식을 같이하다/평생을 같이한 부부
- ② 서로 어떤 뜻이나 행동 따위를 동일하게 가지다.
- =함께하다②.
- ㉣ 그와 의견을 같이하다/견해를 같이하다

- ① '같이'의 품사 정보와 뜻풀이를 보니, '같이'는 부사로도 쓰이고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는 말이로군.
- ② '같이'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같이㉡①'의 용례로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③ '같이'와 '같이하다'의 표제어 및 뜻풀이를 보니, '같이하다'는 '같이'에 '하다'가 결합한 복합어로군.
- ④ '같이하다'는 두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고, 세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군.
- ⑤ '같이하다'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평생을 같이한 부부'의 '같이한'은 '함께한'으로 교체하여 쓸 수 있겠군.

1. <보기>는 사전의 개정 내용을 정리한 자료의 일부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학년도 수능]

	개정 전	개정 후
㉠	굽다 ㉠ 「1」 손톱이나 뾰족한 기구 따위로 바닥이나 거죽을 문지르다. ⋮ 「9」 ……	굽다 ㉠ 「1」 손톱이나 뾰족한 기구 따위로 바닥이나 거죽을 문지르다. ⋮ 「9」 …… 「10」 물건 따위를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하다.
㉡	김-밥 [김:밥] ㉡ ……	김-밥 [김:밥/김:뺨] ㉡ ……
㉢	냄새 ㉢ 「1」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2」 어떤 사물이나 분위기 따위에서 느껴지는 특이한 성질이나 낚새. 내음 ㉢ ‘냄새’의 방언(경상).	냄새 ㉢ 「1」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2」 어떤 사물이나 분위기 따위에서 느껴지는 특이한 성질이나 낚새 내음 ㉢ 코로 맡을 수 있는 나쁘지 않거나 향기로운 기운. 주로 문학적 표현에 쓰인다.
㉣	태양-계 ㉣ 태양과 그것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집합. 태양, 9개의 행성, ……	태양-계 ㉣ 태양과 그것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집합. 태양, 8개의 행성, ……
㉤	(표제어 없음)	스마트-폰 ㉤ 휴대 전화에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

- ① ㉠ : 표제어의 뜻풀이가 추가되어 다의어의 중심적 의미가 수정되었군.
- ② ㉡ : 표준 발음이 추가로 인정되어 기존의 표준 발음과 함께 제시되었군.
- ③ ㉢ : 방언이었던 단어가 표준어의 지위를 얻고 뜻풀이도 새롭게 제시되었군.
- ④ ㉣ : 과학적 정보를 반영하여 뜻풀이 일부가 갱신되었군.
- ⑤ ㉤ : 새로운 문물을 지칭하는 신어가 표제어로 추가되었군.

[10강] 문장성분 실전 연습문제 & 기출문제

[문장성분 실전 연습문제]

1. 다음 중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은?

- ① 영수는 나쁜 학생이다. ② 진희가 슬프게 운다.
- ③ 하늘이 무척 푸르다. ④ 새가 낮게 날았다.
- ⑤ 철수가 빵을 먹는다.

2. ㄱ~ㅁ의 밑줄 친 서술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술어는 의미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 '닭이 콩을 먹었다.'에서 서술어 '먹다'는 '~이 ~을 먹다.'와 같은 구조로 사용되어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 ㄱ. 책이 상당히 두껍다.
- ㄴ. 꽃이 예쁘게 피었다.
- ㄷ. 아기 사슴이 어미 사슴과 뺨았다.
- ㄹ. 손님이 점원에게 옷값을 치렀다.
- ㅁ. 사장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 ① ㄱ: '두껍다'는 '~이 두껍다.'라는 구조이므로 한 자리 서술어이다.
- ② ㄴ: '피다'는 '~이 ~게 피다.'라는 구조이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③ ㄷ: '뺨다'는 '~이 ~과 뺨다.'라는 구조이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④ ㄹ: '치르다'는 '~이 ~에게 ~을 치르다.'라는 구조이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 ⑤ ㅁ: '빌리다'는 '~이 ~에서 ~을 빌리다.'라는 구조이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3. <보기>의 밑줄 친 관형어가 실현된 방식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ㄱ. 서점에는 날마다 새 책이 쏟아져 나온다.
- ㄴ.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마라.
- ㄷ. 두 소녀는 작은 소리로 도란도란 이야기했다.
- ㄹ. 내가 다닌 학교 옆에는 기찻길이 있었다.
- ㅁ. 할아버지께서는 소를 세 마리나 키우신다.

- ① ㄱ을 보니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일 수 있군.
- ② ㄴ을 보니 명사에 조사 ‘의’가 결합하면 관형어로 쓰일 수 있군.
- ③ ㄷ을 보니 용언 어간에 어미 ‘-(으)ㄴ’이 결합하면 관형어로 쓰일 수 있군.
- ④ ㄹ을 보니 단어 이상의 단위가 관형어로 쓰일 수 있군.
- ⑤ ㅁ을 보니 체언이 그 자체로 관형어로 쓰일 수도 있군.

4. <보기>를 참고하여, ‘보내다’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그런데 형태가 동일한 서술어라도 의미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내다’의 경우 ㄱ~ㅁ에서와 같이 의미에 따라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달라진다.

- ㄱ. 그는 방학이면 아이를 시골에 보냈다.
- ㄴ. 그는 마지못해 사랑하는 여인을 보냈다.
- ㄷ. 그 노인은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 ㄹ. 관중들은 선수들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냈다.
- ㅁ. 축구 협회는 대표 팀을 국제 대회에 보낼 예정이다.

- ① ㄱ을 보니, ‘보내다’가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② ㄴ을 보니, ‘보내다’가 ‘놓아주어 떠나게 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③ ㄷ을 보니, ‘보내다’가 ‘시간이나 세월을 지나가게 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④ ㄹ을 보니, ‘보내다’가 ‘상대편에게 자신의 마음가짐을 느끼어 알도록 표현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⑤ ㅁ을 보니, ‘보내다’가 ‘운동 경기나 모임 따위에 참가하게 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5.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끼리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 기 >

다른 말을 수식하는 성분 중 하나인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아니다. 그런데 서술어에 따라서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

- ① 형은 아버지와 많이 닮았다.
그는 장난으로 종을 울렸다.
- ② 그는 요즘 병원에 다닌다.
나이가 드니 몸이 예전과 다르다.
- ③ 나는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키가 작년보다 컸구나.
- ④ 그는 셋길로 빠졌다.
우리가 결승에서 상대를 꺾었다.
- ⑤ 사과에 벌레가 많이 먹었다.
그는 친구들과 하루종일 놀았다.

[문장성분 평가원 / 사관1차 / 교육청 기출문제]

1. <보기>를 바탕으로 ‘목적어’에 대해 탐구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4(예비) 6월 모평A]

<보 기>

㉠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 내가 ㉡ 빵을 먹은 건, 늦잠을 잤기 때문이다. ㉢ 그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 “공부하느라 힘들지?” 하면서 냉장고에서 ㉣ 우유를 꺼내 주셨다.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같이 드시지 않겠냐고 여쭙 보았다. 어머니께서는 “그럼, ㉤ 우유나 마실까?” 하면서 식탁에 앉으셨다. 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는데 ㉥ 그 모습이 참 고우셨다.

- ① ㉠과 ㉢을 보니, 목적어는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대상으로 쓰이는군.
- ② ㉠과 ㉢을 비교해 보니,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자리는 고정적이지 않군.
- ③ ㉠과 ㉤을 비교해 보니, 목적어가 생략될 수도 있군.
- ④ ㉠과 ㉥을 비교해 보니,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도 있군.
- ⑤ ㉡과 ㉣을 보니, 자음 뒤에 ‘을’, 모음 뒤에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쓰이는군.

2. <보기>의 ㉠의 예로만 짝지은 것은? [2013 6월 모평A]

<보 기>

부사어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성분의 하나이므로 대개 문장을 구성하는 데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어떤 서술어는 부사어를 반드시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문장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를 ㉠ ‘필수적 부사어’라 한다. 해당 문장의 서술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동일한 ‘체언 +격조사’ 구성의 부사어라도 필수적 부사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① [나는 삼촌과 영화를 보았다.
어제 본 것은 이것과 꽤 비슷하다.
- ②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 ③ [그들은 몽둥이로 멧돼지를 잡았다.
왕은 그 용감한 기사를 사위로 삼았다.
- ④ [이 지역의 기후는 벼농사에 적합하다.
나는 오후에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 ⑤ [선생님께서 지혜에게 선행상을 주셨다.
홍길동 씨는 친구에게 5만 원을 빌렸다.

3. 문장에서 일부 문장 성분들을 생략하거나 보충하는 활동을 통해 ‘필요한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7 9월 모평]

<보기>

- ㄱ. 아이가 작은 침대에서 예쁘게 잔다.
- ㄴ. 학생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 ㄷ. 그 아이는 예쁘게 생겼다.
- ㄹ. 작은 것이 아름답다.
- ㅁ. 우리도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 ① ㄱ에는 문장 성분이 여러 개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주어와 서술어야.
- ② ㄴ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네 개야.
- ③ ㄷ을 보면 부사어도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어.
- ④ 관형어는 일반적으로 생략될 수 있지만 ㄹ처럼 필수적인 경우도 있어.
- ⑤ ㅁ에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빠졌으니 서술어 ‘개통되다’의 주어를 보충해야 해.

4.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서술어의 문형 정보를 바르게 추출한 것은? [3점] [2016 9월 모평B]

<보 기>

서술어의 필수적 문장 성분은 사전의 문형 정보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문형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지내다’의 예로 간략히 보이면 아래와 같다.

['지내다'의 문형 정보 추출 과정]

예문

- 민수가 요즘에 조용하게 지낸다.
- 할아버지가 노년에 편하게 지내신다.

↓

문장 성분 분석

- 주 어: 민수가, 할아버지가
- 부사어: 요즘에, 조용하게, 노년에, 편하게

↓

필수적 문장 성분 추출

- 주 어: 민수가, 할아버지가
- 필수적 부사어: 조용하게, 편하게

↓ ← 주어 제외

문형 정보 【-게】

예문 → 문형 정보

- ① • 이 나라는 국토가 대부분 산으로 되어 있다.
• 요즘에 가족으로 된 지갑이 인기다. → 【...으로】
- ② • 모두 그 속임수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
• 제 꾀에 자기가 자연스럽게 넘어간 꼴이다. → 【-게】
- ③ • 나는 언니와 옷 때문에 다투기도 했다.
• 그는 누군가와 한밤중에 다투곤 했다. → 【...에】
- ④ • 가방에 지갑이 사은품으로 달려 있다.
• 그 책에 단어장이 부록으로 달려 있다. → 【...으로】
- ⑤ • 옷에서 때가 깨끗하게 빠졌다.
• 청바지에서 물이 허영게 빠졌다. → 【-게】

5.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6월 평가원]

<보 기>

(가)~(다)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고 [A]~[C]는 안긴 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꾼 것이다. 이를 보면 (가)의 '동생', (나)의 '책', (다)의 '도서관'은 완결된 문장[A], [B], [C]에서 뒤에 붙는 조사와 함께 각각 ㉠ 주어, ㉡ 목적어, ㉢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가) 어제 책만 읽은 동생에게 오늘은 쉬라고 했다.

[A] 동생이 어제 책만 읽었다.

(나) 아이가 읽은 책은 동화책이다.

[B] 아이가 책을 읽었다.

(다) 형이 책을 읽은 도서관은 집 근처에 있다.

[C] 형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① ㉠

어제 결혼한 그들에게 나는 미리 선물을 주었다.

누나를 많이 닮은 친구를 우리는 오늘도 만났다.

② ㉠

나무로 된 탁자에 동생이 낙서를 하고 있다.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③ ㉡

두 사람이 어제 헤어진 공원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나는 어제 부모님이 시키신 일을 오늘에야 다 끝냈다.

④ ㉡

친구가 나에게 준 옷이 나는 마음에 든다.

누나는 털실로 짠 장갑도 내게 주었습니다.

⑤ ㉢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 주말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관중이 쓰레기를 남긴 경기장을 열심히 청소했다.

6. <보기>를 바탕으로 ‘부사어’에 관한 탐구 학습을 수행한 결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2011 사관1차]

< 보 기 >

부사어는 문장의 부속 성분으로, 용언이나 관형어 또는 다른 부사어 같은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 부사어와,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 부사어가 있다.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아니지만, ‘다르다’나 ‘주다’와 같은 서술어가 사용된 문장의 경우에는 생략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문장성분이 된다.

- ㄱ. 장미가 참 예쁘다.
- ㄴ. 그는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
- ㄷ. 그는 애인에게 반지를 주었다.
- ㄹ. 다행히 약속 시간에 늦지 않았다.
- ㅁ. 올해는 비가 참 많이 내린다.

- ① ㄱ의 ‘참’과 달리, ㅁ의 ‘참’은 부사어는 수식하고 있다.
- ② ㄱ의 ‘참’과 달리, ㄹ의 ‘다행히’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아니다.
- ③ ㄴ의 ‘아주’와 ㄹ의 ‘다행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
- ④ ㄴ의 ‘아주’와 달리, ㄷ의 ‘애인에게’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이다.
- ⑤ ㄷ의 ‘애인에게’와 ㅁ의 ‘많이’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

7. <보기>의 문장을 바탕으로 부사어의 특성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 사관1차 국어A]

< 보 기 >

- ㄱ. 결국 우리는 여기서 만났다.
- ㄴ. 아주 큰 서점이 생겼다.
- ㄷ. 친구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다.
- ㄹ. 돌고래가 매우 빨리 따라오고 있었다.

- ① ㄱ의 ‘결국’을 보니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겠군.
- ② ㄱ의 ‘여기서’를 보니 부사어는 문장에서 위치가 바뀔 수 있겠군.
- ③ ㄴ의 ‘아주’를 보니 부사어가 관형어를 꾸며줄 수도 있겠군.
- ④ ㄷ의 ‘며느리로’를 보니 부사어는 꾸미는 말이므로 생략할 수 있겠군.
- ⑤ ㄹ의 ‘매우’를 보니 부사어가 부사어를 꾸며줄 수 있겠군.

8. <보기1>을 바탕으로 <보기2>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 사관1차 국어A]

— < 보 기 1 > —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긴문장이라고 하며, 안긴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안긴문장은 하나의 '절'이 되는데, 이는 크게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 < 보 기 2 > —

오늘은 ㉠ 날씨가 아주 덥다. 하지만 큰맘 먹고 집을 나선 이상, ㉡ 지금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다. 그는 ㉢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 날씨가 참으로 덥다고 되뇌었다. 순간 ㉤ 소리도 없이 다가온 자전거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 ① ㉠: 앞의 주어틀 고려할 때 안은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절이다.
- ② ㉡: 명사형 어미 '-기'가 붙은 명사절 뒤에 조사가 결합되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 안은문장과의 공통 주어가 생략되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관형절이다.
- ④ ㉣: 인용격 조사 '고'가 붙어 주체의 말이나 생각을 읊기는 인용절이다.
- ⑤ ㉤: 부사형 어미 '-이'의 도움을 받아 서술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다.

9. 다음은 '이르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사전을 찾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 사관1차 국어A]

이르다¹ [이르러, 이르니] 「동사」

- ㉠ 【...에】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 ㉡ 【...에】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

이르다² [일러, 이르니] 「동사」

- ㉢ 【...에게 ...을】 【...에게 -고】 무엇이라고 말하다.
- ㉣ 【...을】 【...에게 ...을】 【...에게 -고】 【...에게 -도록】 타이르다.
- ㉤ 【...에게 ...을】 【...에게 -고】 미리 알려 주다.
- ㉥ 【...에게 ...을】 【...에게 -고】 어떤 사람의 잘못을 윗사람에게 말하여 알게 하다.
- ㉦ 【...에게 -고】 어떤 대상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거나 가리켜 말하다.

이르다³ [일러, 이르니] 「형용사」

- 【...보다】 【-기에】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빠르거나 앞서다.

- ① '이르다¹', '이르다²', '이르다³'은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되어 있으니 동음이의어이군.
- ② '이르다¹'과 '이르다²'는 하나의 표제어에 두 개 이상의 의미가 있으니 둘 다 다의어이군.
- ③ '이르다¹'과 '이르다²'는 어간에 어미 '-어'가 붙으면 활용의 형태가 달라지는군.
- ④ '이르다¹' ㉠과 '이르다²' ㉢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서로 다르군.
- ⑤ '이르다³'의 용례로 '그는 항상 나보다 빨리 결승점에 이르렀다.'를 들 수 있겠군.

10.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자료로 삼아 탐구 학습을 하였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사관1차 국어B]

< 보 기 >

부르다¹ [불러, 부르니] 「동사」

[1] 【…을】

- ㉠ 말이나 행동 따위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 ¶ 누나가 동생을 부른다.
- ㉡ 이름이나 명단을 소리 내어 읽으며 대상을 확인하다. ¶ 선생님이 출석을 불렀다.
- ㉢ 곡조에 맞추어 노래의 가사를 소리 내다. ¶ 응원가를 부른다.
- ㉣ 어떤 방향으로 따라오거나 동참하도록 유도하다. ¶ 푸른 바다가 우리를 부른다.
- ㉤ 어떤 행동이나 말이 관련된 다른 일이나 상황을 초래하다. ¶ 화는 또 다른 화를 부른다.

[2] 【…을 …에】 【…을 …으로】

청하여 오게 하다. ¶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다.

[3] 【…을 …으로】 【…을 -고】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 ¶ 사람들은 그를 불운한 천재라고 불렀다.

불리다¹ [불리어[--어/--여](불러), 불리니] 「동사」

[1] 【…에게】

- ㉠ '부르다¹[1] ㉠'의 피동사. ¶ 교무실로 선생님에게 불리어 갔다.
- ㉡ '부르다¹[1] ㉡'의 피동사. ¶ 이 노래가 요즘 생도들에게 가장 많이 불린다.

[2] A 의 피동사. ¶ 반 아이들 이름이 하나하나 불렸다.

[3] 【…에게 …으로】 【…에게 -고】

'부르다¹[3]'의 피동사. ¶ 막걸리는 농민들에게 농주로도 불렸다.

- ① A에는 '부르다¹[1] ㉡'이 들어간다.
- ② '부르다¹'과 '불리다¹'은 모두 활용을 할 때 어간의 형태가 바뀐다.
- ③ '부르다¹[1] ㉡'의 용례로 '조국이 우리를 부른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④ '부르다¹[1]'의 ㉢, ㉤은 '불리다¹'을 활용하여 피동문을 만들 수 없다.
- ⑤ '부르다¹'의 [1]~[3]은 모두 주어와 서술어 이외의 문장 성분이 더 필요하다.

11. <보기>를 바탕으로 '관형어'에 대해 탐구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 경찰대 변형]

<보 기>

- ㉠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 ㉡ 동생은 새 자전거를 샀다.
- ㉢ 누나는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다.
- ㉣ 경찰인 형은 휴가에나 볼 수 있다.
- ㉤ 자기 전에 할 일을 모두 끝내야 한다.

- ① ㉠에서 명사가 관형격 조사와 결합하여 관형어로 쓰였군.
- ② ㉡에서 관형사가 다른 성분의 도움 없이 바로 관형어로 쓰였군.
- ③ ㉢에서 명사가 다른 성분의 도움 없이 바로 관형어로 쓰였군.
- ④ ㉣에서 동사가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여 관형어로 쓰였군.
- ⑤ ㉤에서 동사의 명사형이 관형어로 쓰였군.

[11강] 문장의 구조 출제경향 및 개념

[문장의 형태 패턴 파악]

Note

문장성분의 형태		기억해야 할 패턴
출문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문장 : 주어도 1개, 서술어도 1개 - 겸문장 : 주어 또는 서술어가 2개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은 주어와 상관없이 서술어가 2개 이상임. · 서술절이 안개있는 문장만 서술어가 1개임, 주어는 2개.
겸문장	안은-안긴문장	<p>[안은-안긴 문장에서 안기문장 절의 종류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곳을 찾자! (용언, 서술격조사) · 그 곳이 명사형태(-음, -기)면 명사절! · 체언을 수식하면 관형사절! · 용언을 수식하면 부사절! · 사람말을 인용했으면 인용절! - 서술절은 외워라! '코끼리가 코가 길다'의 형태 · 서술자 '되다-아니다'인 경우만 예외 (주어보리 구조만)
	이어진문장	<p>[이어진 문장의 종류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and, but, 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어미를 통해 실현 : 대등하게 이어주는 연결어미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외 나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어미를 통해 실현 : 종속적으로 이어주는 연결어미

1. 문장의 짜임새

문장 ─ 홑문장

└ 겹문장 ─ 안은 문장

└ 이어진 문장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Note

(1) 홑문장과 겹문장

1) 홑문장 : 주어와 서술어가 각각 하나씩 있는 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이루어져 있는 문장.

예) 그가 드디어 얼굴에 미소를 띠었다. 아기가 잔다.

2) 겹문장 : 한 개의 홑문장이 한 성분으로 안겨 들어가서 이루어지거나,

홑문장이 여러 개가 이어져서 여러 겹으로 된 문장.

예) 우리는 이제서야 그가 확실히 우리를 사랑했음을 깨달았다.

전체주어 (주어) 명사절 (서술어) 전체서술어

그는 이 고장에서 태어났고, () 평생 동안 여기서 살았다.

주어 서술어 ^ '그는'을 생략. 서술어

(2) 문장 속의 문장

1) 안김과 안음

① 안은 문장 : 속에 다른 문장을 안고 있는 겉의 전체 문장.

예) 농사가 잘 되기를 금년에도 바란다.

② 안긴 문장 : 한 문장이 절의 형태로 바뀌어서 전체 문장 속에 안김.

(㉠) 명사절로 안김 : 전체 문장 속에서 주어·목적어 구실을 함.

i) -(으)ㄴ, -기 ; 예) 철수가 축구에 소질이 있음이 밝혀졌다.

올해는 네가 합격하기를 빌겠다.

ii) -는(-ㄴ) + 것 ; 예) 학생들이 고민이 많다는 것이 사실이다.

iii) '-느냐/-(으)냐, -는가/-(으)냐가, -는지/-(으)는지' 등의 종결

어미로 끝난 문장이 그대로 명사절이 되어 안김.

예) 그들이 정말 그 일을 해내느냐가 문제였다.

(㉡) 서술절로 안김 : 전체 문장 속에서 서술어 구실을 함.

예) 이 책은 활자가 너무 작다.

(㉢) 관형절로 안김 : 전체 문장 속에서 관형어 구실을 함

예) 네가 깜작 놀랄 일이 생겼다.

나는 (내가) 그에게 책을 빌려준 기억이 없다.

(㉣) 부사절로 안김 : 용언에서 파생된 부사(용언의 어간 + '-이' ; 없이, 같이, 달리, 있어, 비슷이, ...) 가 부사어의 노릇을 하고 있음.

예) 그는 자금도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얼굴이 잘 생긴 것과는 달리 품행은 좋지 않다.

(㉤) 인용절로 안김 : 말의 내용, 생각, 판단 등을 인용.

인용절은 문장 성분으로 보면 **부사어**로 보는 것이 좋다.

i) 간접 인용 : '고' → '-다, -라, -냐, -자 + 고'

ii) 직접 인용 : '라고' → '인용 내용의 문장 + 라고'

* 억양까지 흉내 낼 때는 '하고'를 쓴다.

2) 문장의 안김과 성분의 생략

한 문장이 절의 형태로 큰 문장 속에 안길 때,
안긴 문장의 성분이 그것을 안은 문장의 한 성분과 동일하면 그 성분은 생략됨.

예 나는 (내가) 집에 가기가 싫다.
선생님은 철수를 (철수가) 부지런하다고 칭찬하셨다.

Note

(3) 이어진 문장

1) 이어진 문장 : 연결어미에 의해 두 문장이 결합된 문장.

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대등적 연결 어미 ‘-고, -(으)며, -(으)나, -지만’ 등에 의하여 대등한 관계로 결합된 문장.

예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그는 갔으나, 예술은 살아 있다.

②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앞절에 종속적 연결 어미를 붙여 뒷절에 종속적으로 붙인 문장. (뒷절이 주가 되고, 앞절이 쫓이 된다.)

(ㄱ) 조건, 가정 : -(으)면, -거든, -더라면

(ㄴ) 이유, 원인 : -아서, -(으)므로, -(니)까

(ㄷ) 결과가 예상의 반대임 : -(으)나, -아도, -지마는, -라도

(ㄹ) 한 가지 이상의 일을 나열함 : -고, -(으)며

(ㄹ) 덧붙태거나 더해 감 : -(으)ㄹ뿐더러, _(으)ㄹ수록

(ㅎ) 의도 : -(으)려고, -고자 예 너에게 주려고 나는 선물을 샀다.

(ㅇ) 어떤 상태에 이르기까지 행위가 미침 : -도록, -듯이, -게

예 나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ㅊ) 한 일이 끝나고 동시에 다른 일이 잇달아 일어남 : -어서자

(ㅋ) 다른 일로 옮겨감 : -다, -다가

예 바람이 불다가 지금은 잠잠해졌다.

(ㆁ) 목적 : -(으)러 예 나는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간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구별

안은-안김문장으로 바꾸어 성립이 되면, 종속적 문장으로 판별

예 나는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간다. ⇒ 나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간다.

봄이 오니 날씨가 따뜻하다. ⇒ 날씨가 봄이 오니 따뜻하다.

순서를 바꿔도 문장의 의미가 변화가 없을 경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판별

(4) 긍정과 부정

1) '안' 부정문 - 주체(동작주)의 의지에 의한 행동의 부정.

① 부정의 방법

(ㄱ) 서술어가 명사일 때 : '이다' → '-가/-이 아니다.'

(ㄴ) 서술어가 동사·형용사일 때 :

① 동사·형용사 어간 + '-지 않다(아니하다)'

② '안(아니)' + 동사·형용사

② 긴 부정문과 짧은 부정문

(ㄱ) 긴 부정문 : 용언의 어간 + '-지' + '않다(아니하다)'

(ㄴ) 짧은 부정문 : '안(아니)' + 동사·형용사

③ '안' 부정문의 해석- 중의적이라,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 나는 그를 안 때렸다.(나는 그를 때리지 않았다.)

⇒ 다른 사람이 때렸다. 다른 사람을 때렸다. 좀 때밀었을 뿐이다.

#의미를 명확히 하려면 보조사를 첨가할 것.(때리지는 않았다.)

2) '못' 부정문 - 주체의 의지가 아닌, 그의 능력상 불가능하거나

또는 외부의 어떤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할 때.

① 긴 부정문과 짧은 부정문

(ㄱ) 긴 부정문 : 동사의 어간 + '-지' + '못하다'

(ㄴ) 짧은 부정문 : '못' + 동사(서술어)

② '못' 부정문의 해석 - 중의적이다.

예) 내가 철수를 못 만났다.(내가 철수를 만나지 못했다.)

⇒ 내가 못 만난 사람은 철수다, 철수를 만나지 못한 것은 나다,

내가 철수를 만나지만 못했을 뿐이다

3) 명령문과 청유문의 부정

① 부정의 방법 → '-지 말다'를 붙임

예) 집에 가지 말아라.(명령문)

학교에 가지 말자.(청유문)

② '-지 말다'의 쓰임

(ㄱ) 소망을 나타내는 '바라다, 원하다, 희망하다' 등의 동사가 오면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아니라도 '-지 말다'를 쓰기도 한다.

예) 비가 오지 말기를 바랐다.

네가 오지 말고 그대로 있었으면 했다.

(ㄴ) 형용사에 '말다'가 쓰이면 명령·청유가 아니라 기원의 뜻이 있다.

예) 올 겨울은 제발 춥지 말아라. *아름답지 말아라

[12강] 문장의 구조 실전 연습문제 & 기출문제

[문장의 구조 실전 연습문제]

1. 다음은 부정 표현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어의 부정 표현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선생님 : 고향에 다녀왔니?
 학생 : 아니요.
 선생님 : 고향에 다녀오지 못한 거니, 다녀오지 않은 거니?
 (나) 어머니 : 이 꽃병은 만지지 마라.
 아들 : 네. 안 만질게요.
 (다) 이 옷은 생각보다 예쁘지 않네.
 (라) 소현 : 저 영화 보는 거 어때?
 철이 : 우리 저 영화 보지 않았니?
 (마) 영수가 책을 안 샀다.

- ① (가) : 학생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묻기 위해 능력 부정과 의지 부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② (나) : 명령문에는 평서문과 달리 부정 표현으로 ‘아니하다(않다)’가 사용되지 않는다.
 ③ (다) : 의지 부정이나 능력 부정과 관계없는 상태 부정 표현에 해당한다.
 ④ (라) : 부정 표현을 통해 ‘소현’과 이전에 영화를 함께 보았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⑤ (마) : 부정의 대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2. <보기>를 이용해서 문장의 구조에 관한 발표 수업을 진행 하였다.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ㄱ. 아버지께서는 인정이 많으시다.
 ㄴ. 그녀는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ㄷ. 민정이는 발에 땀이 나도록 걸었다.
 ㄹ. 지금은 영화관에 가기에 늦은 시간이다.

- ① ㄱ에서 ‘인정이 많으시다’는 ‘아버지께서는’의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는 서술절입니다.
 ② ㄴ의 ‘뺨에 흐르는’은 ‘눈물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입니다.
 ③ ㄷ의 ‘발에 땀이 나도록’은 ‘발에 땀이 나다’에 ‘-도록’이 붙어 만들어진 부사절입니다.
 ④ ㄹ에서 ‘영화관에 가기’는 명사형 어미 ‘-기’가 붙은 명사절로,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⑤ ㄴ의 ‘뺨에 흐르는’과 ㄷ의 ‘발에 땀이 나도록’은 모두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3. 제시된 자료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탐구 내용
① 동생은 경찰이 되었다. ㉠ 동생은 얼굴이 변했다.	㉠과 달리 ㉠은 서술절이 안겨 있는 겹문장이군.
㉡ 그는 눈이 오기 전에 떠났다. ㉢ 그는 눈이 오기를 기다렸다.	㉠과 달리 ㉢의 명사절에는 조사가 결합되어 있군.
㉣ 저 사람이 진범임이 확실하다. ㉤ 저 사람이 진범임에 틀림없다.	㉣에는 명사절이 안겨 있고 ㉤에는 부사절이 안겨 있군.
㉥ 형은 내가 늦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 형은 내가 모르는 소식을 들었다.	㉣과 달리 ㉦의 관형절에는 안은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이는 말이 생략되어 있군.
㉧ 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 ㉨ 이 문제를 풀기 바란다.	㉧의 명사절은 주어의 기능을 하고 ㉨의 명사절은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군.

4.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다른 문장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절을 안긴문장이라고 하며, 이 절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안긴문장은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나뉜다.

■[그는 [[내가 쓴] 보고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
㉡

㉢

■[선생님은 [우리가 [학생들의 의사를 잘 대변하는] 대표를 선출하기]를 바라신다.]

㉣
㉤

㉥

- ① ㉠이 수식하는 명사는 주격 조사와 결합하였고, ㉢이 수식하는 명사는 목적격 조사와 결합하였다.
- ② ㉠과 ㉡의 주어는 동일하지 않지만, ㉣과 ㉤의 주어는 동일하다.
- ③ ㉠과 ㉢이 생략되어도 ㉣과 ㉤은 문장으로 성립할 수 있다.
- ④ ㉡은 명사형 어미 ‘- 음’과, ㉤은 ‘-기’와 결합하여 명사절이 되었다.
- ⑤ ㉡과 ㉤은 목적격 조사와 결합하여 각각 ㉣과 ㉤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5. <보기>의 ㉠에 들어갈 수 있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타나느냐에 따라 홑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은 홑문장이고,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것은 겹문장이지요. 그런데 '예쁜 꽃이 피었다.'와 같은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꽃이 예쁘다.'와 '꽃이 피었다.'가 결합한 겹문장입니다. '꽃이 예쁘다.'에서 주어가 생략되고 관형사형 어미에 의해 만들어진 관형절이 '꽃이 피었다.'라는 문장에 안겨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방식으로 관형절을 안은 문장의 예를 더 들어 볼까요?

학생: ' ㉠ '를 들 수 있습니다.

- ① 주차장에는 큰 자동차가 많다.
- ② 창밖으로 넓은 들판이 보인다.
- ③ 귀여운 아기가 쌔근쌔근 잔다.
- ④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⑤ 빨간 옷이 친구에게 잘 어울린다

[문장의 구조 평가원 / 사관1차 / 교육청 기출문제]

1. <보기>를 이용하여 국어 문장 구조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5 수능]

<보기>

- ㄱ. 담징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 ㄴ.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 ㄷ. 그 사람은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해.

- ① 위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다른 문장 속에 안긴 문장입니다.
- ② 그런데 ㄱ, ㄴ, ㄷ에서 밑줄 친 부분은 각각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 ③ ㄱ의 밑줄 친 부분에는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생략된 주어는 ‘담징’입니다.
- ④ ㄴ에서는 밑줄 친 부분뿐 아니라 ‘그가 착한’과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도 안긴 문장입니다.
- ⑤ 이처럼 우리말은 문장 속에 문장을 안은 형태로 복잡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9월 모평A]

<보 기>

일반적으로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청하는 문장인데,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요청할 때 쓰이기도 한다.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 유형들은 ㉠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을 할 때 쓰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① A : 괜찮다면, 우리 여기서 잠깐 기다릴래요?
B : 좋아요. 10분만 더 기다려요.
- ② A : 다친 곳은 어떤가? 한 번 보세.
B : 보시다시피 많이 좋아졌습니다.
- ③ A : 저기요. 먼저 좀 내립시다.
B : 아, 예. 저도 여기서 내려요.
- ④ A : 저 혹시, 모자를 벗어 주실 수 있을까요?
B : 제가 방해가 되었군요. 미안합니다.
- ⑤ A : 어디 보자. 내가 다 챙겼나?
B : 거기서 혼자 뭐 해요. 빨리 나와요.

3. ㉠~㉤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 경찰대]

<보 기>
 ㉠ 물이 얼음이 되었다.
 ㉡ 이것은 성린이가 읽던 책이다.
 ㉢ 항상 옳은 일을 하기는 쉽지 않다.
 ㉣ 비가 오지만, 바람은 불지 않는다.
 ㉤ 성연이는 밥을 먹었지만, 배가 부르지 않다.

- ① ㉠은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 ② ㉡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으로 겹문장이다.
- ③ ㉢은 전성어미가 붙어 만들어진 절이 주어로 쓰인 겹문장이다.
- ④ ㉣은 연결어미로 홑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한 겹문장이다.
- ⑤ ㉤은 연결어미로 홑문장을 종속적으로 연결한 겹문장이다.

4. <보기1>을 바탕으로 <보기2>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 사관1차 국어A]

< 보 기 1 >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긴문장이라고 하며, 안긴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안긴문장은 하나의 '절'이 되는데, 이는 크게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 보 기 2 >

오늘은 ㉠ 날씨가 아주 덥다. 하지만 큰맘 먹고 집을 나선 이상, ㉡ 지금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다. 그는 ㉢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 날씨가 참으로 덥다고 되뇌었다. 순간 ㉤ 소리도 없이 다가온 자전거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 ① ㉠: 앞의 주어를 고려할 때 안은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절이다.
- ② ㉡: 명사형 어미 '-기'가 붙은 명사절 뒤에 조사가 결합되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 안은문장과의 공통 주어가 생략되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관형절이다.
- ④ ㉣: 인용격 조사 '고'가 붙어 주체의 말이나 생각을 읊기는 인용절이다.
- ⑤ ㉤: 부사형 어미 '-이'의 도움을 받아 서술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다.

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6 사관1차 국어A]

< 보 기 >

- ㉠ 시청에서 파란 대문이 인상적인 저 오래된 건물을 도서관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 ㉡ 그에게는 우리가 언제 서울로 돌아오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
- ㉢ 그가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에게 그 답을 주도록 하겠다.

- ① ㉠에는 간접 인용절이 안겨 있다.
- ② ㉡의 관형사절에서 생략된 주어는 '문제가'이다.
- ③ 문장을 분석하면 홑문장의 개수는 ㉢이 가장 적다.
- ④ ㉢은 앞 절과 뒤 절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⑤ ㉠의 주어는 '시청에서'이고, ㉡의 주어는 '그에게는'이다.

[13강] 문법요소 출제경향 및 개념

Note

[문법요소 출제패턴]

구 분	기억해야 할 출제 패턴			
사동에서 기억할 패턴	<p>[사동을 구분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형 : 접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 장형 : -하게 하다 	<p>[사동에서 유의할 패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동문의 중의성 : 직접사동 vs 간접사동 - 신체일부 표현 유의하기 · 나는 머리를 숙였다. 		
피동에서 기억할 패턴	<p>[피동을 구분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형 : 접사 이, 히, 리, 기, 되 - 장형 : -어지다 	<p>[사동에서 유의할 패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피동 : 단형피동+장형피동 - 사동접사+장형피동은 이중피동이 아님 		
시제에서 기억할 패턴	<p>[절대시제, 상대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시제 : 발화시를 기준으로 판단 - 상대시제 : 사건시를 기준으로 판단 * 발화시, 사건시 개념 알아두기 	<p>[시제를 나타내는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어말어미 사용 - 관형사형 전성어미 사용 - 시간부사어 사용 		
높임에서 기억할 패턴	높임의 종류	주요 출제 패턴		중세국어
	주체높임	주어	선어말어미, 조사, 특수어휘	선어말 어미 有
	- 간접높임	높임대상 소유물	선어말어미만 사용	-
	객체높임	목적어, 부사어	조사, 특수어휘	선어말 어미 有
상대높임	상대방(청자)	종결어미, 보조사 -요 (저, 말씀)	선어말 어미 有	

1. 사동과 피동

1) 사동(使動)

① 사동과 주동

- (ㄱ) 사동사 :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것을 나타냄.
- (ㄴ) 주동사 : 동작주가 스스로 행하는 동작을 나타냄.

② 사동문 되기

- (ㄱ) 단형 사동문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시키-)
 - 예) 열음이 녹는다 → 아이가 열음을 녹인다. (주동문 주어 → 목적어)
숙이다, (먼지를) 묻히다, 울리다, 숨기다, 깨우다, 일구다, 맞추다
- (ㄴ) 장형 사동문 (-게 하다)
 - 예) 개가 집을 지키다. → 개가 집을 지키게 하다.
이 집은 철수에게 지읍시다. → 이 집은 철수가 지게 합시다.

③ 사동문의 의미

- (ㄱ)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 예)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약을 먹이셨다.
→ 직접 먹였다, 먹게 하셨다
- (ㄴ) 파생법에 의한 사동문(위의 (ㄱ), (ㄴ), (ㄷ)과, '-게 하다'가 붙은 사동문(위의 (ㄹ))은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 예)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옷을 입히셨다. (직접, 간접) - 두 가지 뜻
.. 입게 하셨다. (간접 행위) - 한 가지

2) 피동(被動)

① 피동과 능동

- (ㄱ) 피동사 : 남의 행동을 입어서 행해지는 동작을 나타냄.
- (ㄴ) 능동사 : 제 힘으로 행하는 동작을 나타냄.

② 피동문 되기

- (ㄱ) 단형 피동 : (-이-, -히-, -리-, -기-, -되-)
 - 예) 순경이 도둑을 잡았다 → 도둑이 순경에게 잡히었다
보이다, 놓이다, 잡히다, 들리다(聞), 안기다
- (ㄴ) 장형 피동 : (-게 되다, -어 지다)
 - 예) 광수가 비로소 그의 오해를 풀었다.
→ 그의 오해가 광수에 의해 비로소 풀어졌다.

2. 시간 표현

1) 사건시와 발화시

- ① 사건시 :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난 시간.
- ② 발화시 : 문장을 말한 시간으로 항상 현재임.

2) 시제 : 말하는 이의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의 앞뒤를 제한하는 것.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다.

- ① 절대 시제 : 발화시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시제. (용언의 종결형에 나타남.)
- ② 상대 시제 : 전체 문장의 사건시에 기대어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시제.
(용언의 관형사형, 연결형에 나타남.)

3) 동작상(動作相) : 문장 안에서 동작의 양상을 표시하는 문법적 사실.

보통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용언의 결합으로 이루어짐.

- ① 현재 완료상 : '-아/-어 있다'
- ② 현재 진행상 : '-고 있다', '-는 중이다', '-어 가다', '-곤 하다'
- ③ 현재 예정상 : '-게 되다', '-게 하다', '-고자 하다'

4) 현재시제(現在時制) :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할 때.

① 표현 방법 :

- (ㄱ) 선어말어미 : -는-/-ㄴ- 예) 그는 지금 책을 읽는다.
- (ㄴ)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 -는-/(으)ㄴ 예) 이처럼 예쁜 꽃은 처음이다.

② 특징 :

- (ㄱ)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는 현재 시제 표시 형태가 따로 없다.
예) 바쁘시다, 이시다
- (ㄴ) 발화시 관련 부사적 표현에 의해 뒷받침 된다. 예) 지금, 현재, 요즘, ...
- (ㄷ) 반복되는 동작이나 항구적 속성, 습관을 표시한다.
예) 지구는 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형은 야구를 좋아한다.
- (ㄹ) 발화시 이후에 일어날 예정된 일도 표시함. 확실한 미래.
예) 내일 떠난다.(사건시와 발화시의 불일치)
- (ㄴ) 과거에 있어서의 현재. 예) 도서관은 책을 읽는 학생들로 붐볐다.
- (ㄷ) 현재에 있어서의 현재. 예)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처음 본다.

5) 과거시제(過去時制) :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설 때의 시제.

① 표현 방법

- (ㄱ) 선어말 어미 : -었-, -았-, -(하) 였-, -더-, -었었-, -았었-
- (ㄴ)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 -은, -ㄴ

② 선어말 어미 ‘-더-’의 쓰임 ⇒ 종결어미 ‘-라, -냐’의 앞에서 나타남.

(-더- + 라 → ‘-더라’, -더- + 냐 → ‘-더냐’)

- (ㄱ) 말하는 이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회상할 때.

단, 주어가 말하는 이(1인칭) 자신일 때는 종결형에서 쓰이지 않음.

예 그는 집에서 공부하더라. 나는 집에서 *공부하더라.

- (ㄴ) 관형사형에서는 ‘-던’으로 나타남.(1인칭 주어와 결합한다.)

예 그것은 제가 읽던 책입니다.(동작의 지속 표시)

- (ㄷ) ‘-었-/ -았-’ + ‘-더’ : 경험 당시의 과거(과거 완료) 표시.

예 용장이었던 총무공은 전사하고야 말했다.(동작의 완결 표시)

아까 어떤 분이 찾아오셨더군요. (" " ")

③ 과거 시제의 특징

- (ㄱ) 발화시 관련의 부사적 표현(어제, 작년...)에 의해서 뒷받침 된다.

- (ㄴ) ‘-고 있었다’에 의하여 과거 진행의 동작상을 표시한다.

예 읽고 있었다.

- (ㄷ) ‘-었었-/ -았었-’을 써서 ‘현재(금년이나 오늘 등)에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를 뚜렷히 한다.

‘-었-’에 비해 발화시보다 더 강한 단절감을 받는다.

예 작년에 삼남 지방에서 홍수가 났었다.

엿그제 철수가 극장에 갔었다.

- (ㄹ) ‘-었었-/ -았었-’이 쓰인 문장에는 과거 관련의 시간 부사어가 자주 나타난다.(주로 먼 과거에)

예 영숙이는 중학교 때 농구 선수였었다.

- (ㅁ) ‘-었-/ -았-’이 과거를 나타내지 않는 때도 있다.

i)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할 때, 동작의 현재 완료를 뜻할 때.

‘앉다, 서다, 뜨다...’등 결과성을 띠는 동사에 나타난다.

예 그녀도 지금 의자에 앉았다.

ii) 동작의 지속을 나타낼 때에도 쓰인다.

예 그녀는 온종일 책을 읽었다.

6) 미래시제(未來時制) : 사건시가 모두 발화시 이후일 때의 시제.

① 표현 방법

(ㄱ) '-겠-'

- i) 미래시제 표현 : 예) 내일은 이 일을 꼭 끝내겠다.
- ii) 양태적 의미 표현 ;
 ─추측 : 예) 내일도 비가 오겠다.
 | 의지 : 예) 내가 먼저 가겠다.(평서문 1인칭, 의문문 2인칭)
 ─가능성 : 예) 나도 그것은 알겠다.
- iii) 현재의 사건 추측 : 예) 지금은 고향에도 벚꽃이 피겠다.
- iv) 과거의 " " : 예) 고향에는 벌써 살구꽃이 피었겠다.

(ㄴ) '-ㄹ'(관형사형 미래시제) : 형태 → '-ㄹ 것, -ㄹ 때, ...'

- i) 미래시제 표현 : 예) 내일은 그가 올 것이다.
- ii) 시간 표시어 앞에 쓰여 특정한 시제로 해석되지 않을 때도 있다.
 예) 합격할 때까지 노력하자.

'적, 때, 따름, 뿐' 앞의 '-(으)ㄹ'의 시제는 일정하지 않다.
 예) 내가 갈 때 비가 왔었다.
 내가 갈 때 너는 있겠지.

② '-ㄹ 것이다'(관형형 어미 + 의존 명사)

- (ㄱ) '-겠-'보다 '-ㄹ 것이다'가 밀하는 이의 의지가 약해 보인다.
 판단의 근거가 약하다.
 예) 내일은 비가 올 것입니다. <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ㄴ) 보통 '-ㄹ 거다'로 표현.

예) 내일은 비가 올 거다.

3. 높임

Note

1) 주체 높임법 : 문장의 주체를 높임.

① 주체 높임의 방법 ;

- (ㄱ)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붙임.
- (ㄴ) 주격조사 ‘께서’, 접미사 ‘-님’과 함께 쓰이기도 함.
- (ㄷ)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편찮으시다, 돌아가시다 등 특수 어휘로 실현되기도 함.
- (ㄹ) 주체가 말하는 이보다 높아서 높임의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말 듣는 이가 주체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를 쓰지 않는다.(압존법)

예)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왔습니다.

② 간접높임 : 절대 높임의 특수어휘를 쓰지 않는다. [예외 : 말씀]

(ㄱ)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임.

(높여야할 대상의 신체 부분이나 개인적 소유물이 되는 말은 ‘-시-’를 붙여 **간접 높임**으로 말하는 것이 옳다.)

예) 그 분은 귀가 밝으십니다.

선생님은 감기가 드셨습니다.

2) 객체 높임법 : 문장의 객체를 높임. [드리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 동작의 대상인 객체(목적어나, 처소적인 격조사가 붙은 부사어)를 높일 때에, 서술어에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를 사용한다.

예)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뵙다 드렸습니다.

(동작의 대상) (주다→드리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3) 상대 높임법 : 말 듣는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춤.

① 상대 높임의 방법 ; 일정한 종결 어미를 사용함. (예외, 겸양의 의미 : 저 / 말씀)

② 상대 높임법의 구분 ;

(ㄱ) 격식체(格式體) : 말하는 이와 말 듣는 이 사이의 거리가 멀 때.

공식적, 의례적, 직접적, 단정적, 객관적.

i) 해라체 (아주 낮춤) → -다, -냐, -자, -어라, -거라, -라

ii) 하게체 (보통 낮춤) → -게, -이, -나

iii) 하오체 (보통 높임) → -오, -(으)브시다

iv) 합쇼체 (아주 높임) → -습니다/-브니다, -습니까/-브니까,

-(으)시오

(ㄴ) 비격식체(非格式體) : 말하는 이와 말 듣는 이가 가까울 때.

비공식적, 부드럽고, 비의례적, 비단정적, 주관적.

i) 해 체 (두루 낮춤) → -아/-어, -지, -을까 (해라체+하게체)

ii) 해요체 (두루 높임) → -아/어요, -지요, -을까요 (하오체+합쇼체)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하십시오체(아주 높임)	하십니다	하십니까?	하십시오	하십시오	없음
하오체 (예사 높임)	하(시)오	하(시)오?	하(시)오	합시다	하구려
하게체 (예사 낮춤)	하네	하는가?	하게	하세	하구먼
해라체 (아주 낮춤)	한다	하지?	해라	하자	하구나
해요체 (두루 높임)	해요	해요	해요	해요	해요
해체 (두루 낮춤)	해	해	해	해	해

4. 중의성, 어법에 맞는 표현

Note

구 분	기억해야 할 출제 패턴
<p>중의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 예) 나는 사랑하는 친구의 오빠를 만났다. ○ 주어와 목적어 범위에 따른 중의성 예) 나는 호준이와 윤석이를 놀렸다. ○ 비교 대상의 중의성 예) 아버지는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신다. ○ 병렬 구문의 중의성 예) 나는 사과와 감 두 개를 골랐다. ○ 부정문의 중의성 예) 학생들이 다 안 왔다. ○ 진행과 완료의 중의성 예) 그는 운동화를 신고 있다.
<p>어법에 맞는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성분 갖추기 예) (부사어의 생략)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응하기도 한다. 예) (서술어의 생략) 계곡에서는 수영과 밥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예) (주어의 생략) 우리는 타인을 존중해야 하고,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 문장 성분간의 호응 예) (주어-서술어) 당부하고 싶은 말은 끝까지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예) (부사어-서술어) 반드시 먹지 마세요. 절대로 먹어야 합니다. 비록 ~일지라도 ○ 이중피동

[14강] 문법요소 실전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문법요소 실전 연습문제]

1. <보기>를 참고하여 피동 표현에 대해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이라 하고,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피동 표현은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이-, -히-, -리-, -기-’가 붙어서 만들어지거나 ‘-어지다’등에 의해 만들어진다.

- ① ‘그녀의 웃음소리는 참 간드러졌다.’에는 ‘-어지다’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 쓰였군.
- ② ‘그가 개에게 엉덩이를 물렸다.’에는 피동 접미사 ‘-리-’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 쓰였군.
- ③ ‘그는 얼굴을 고양이에게 긁혔다.’에는 피동 접미사 ‘-히-’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 쓰였군.
- ④ ‘바구니에 과일이 가득 담겨 있다.’에는 피동 접미사 ‘-기-’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 쓰였군.
- ⑤ ‘어려운 시기를 넘기더니 그는 완전히 새사람으로 뒤바뀌어 있었다.’에는 피동 접미사 ‘-이-’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 쓰였군.

2. 다음에 제시된 학생의 글과 선생님의 평가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말 중 ‘벗겨지다’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어느 책에서 ‘벗겨진 머리’는 잘못된 표현이고 ‘벗어진 머리’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지적하면서, ‘벗겨지다’를 피동 표현이 겹쳐 사용된 ‘이중 피동’으로 설명한 것을 보았다. 그러나 ‘벗겨지다’는 사동사 어간 ‘벗기-’에 통사적인 피동 표현 ‘-어지다’가 결합한 것이지 이중 피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생님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했네? 대단해! 네 말대로 ‘벗겨지다’는 이중 피동이 아니지.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이중 피동이 아닌 것을 이중 피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야 해.

- ① 방 안이 환히 밝혀졌다.
- ② 머리가 저절로 숙여졌다.
- ③ 손잡이가 천천히 돌려졌다.
- ④ 그 일은 오래전에 잊혀졌다.

3. <보기>의 ㉔에 해당하는 사례로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우리말의 높임법 중 객체 높임법은 문장 내에서 주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이는 높임법이다. 예를 들어 “형은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다.”라는 문장에서 주체 ‘형’이 선물을 드리는 행위는 ‘선생님’이라는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대상을 높이기 위해 ‘주다’가 아니라 ‘드리다’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객체 높임법은 ㉔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

- ㉑ 나는 오랜만에 형님을 뵈었다.
- ㉒ 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모시고 오셨다.
- ㉓ 어머니께서 늦은 시간까지 거실에 계셨다.
- ㉔ 철호는 선생님께 궁금한 것을 여쭙어 보았다.
- ㉕ 우리는 할아버지께서 과일을 잡수시기를 기다렸다.

- ① ㉑, ㉒, ㉓ ② ㉑, ㉒, ㉔ ③ ㉑, ㉓, ㉕
- ④ ㉒, ㉔, ㉕ ⑤ ㉓, ㉔, ㉕

4. <보기>의 (가)에 제시할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 혹은 보조사에 의해 실현되며, 6개의 등급이 있다. 상대 높임 표현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격식체	비격식체
하십시오체	해요체
하오체	
하게체	해체
해라체	

그런데 한 청자에 대해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함께 쓰는 일이 흔하다. 다음과 같은 표현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가)

- ① (교사가 학생에게) 교과서는 모두 꺼냈어요? 수업 시작할까?
- ② (장인이 사위에게) 자네 식사는 했어? 어서 자리에 와서 앉게.
- ③ (아내가 남편에게) 빨리 준비해서 나갑시다. 약속에 늦겠어요.
- ④ (엄마가 아들에게) 너 내일 일찍 나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니? 빨리 자.
- ⑤ (부하 직원이 상관에게)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휴가는 잘 다녀오셨어요?

5. <보기 1>을 참고할 때,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는 정도와 격식성 여부가 <보기 2>의 문장과 같은 것은?

< 보 기 1 >

국어의 상대 높임 표현은 격식성 여부에 따라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둘로 나뉜다. 비격식체의 높임 표현은 해요체이고 낮춤 표현은 해체이다. 해체에 보조사 '요'가 붙으면 해요체가 된다. 즉 '요'가 붙을 수 있는 종결 어미는 해체 종결 어미이다. 격식체는 하십시오체가 가장 높은 표현이고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순으로 높임의 등급이 낮아진다. 등급을 판단할 때에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컨대 <보기 2>는 친구나 동생에게 낮추어 할 만한 말이고 '요'를 붙일 수 없으므로 해라체 문장이다. 요컨대 상대 높임 표현은 대개 종결 어미에 의해 결정되나 '요'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 보 기 2 >

어제 민주가 그 음악회에 갔었니?

- ① 성호가 너희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
- ② 네가 동생한테 볼펜을 가져다주었구나.
- ③ 어떻게 그 숙제를 한 시간 만에 끝냈지?
- ④ 우리 오늘 공원에 가서 산책이나 합시다.
- ⑤ 어머, 그 가수가 우리 학교 축제 때 온대?

6. <보기>의 ㉠~㉣에 들어갈 예가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 기 >

-이-31 「접사」

- 「1」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 「2」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 「3」 ((몇몇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

	㉠	㉡	㉢
①	먹이다	놓이다	높이다
②	붙이다	끓이다	깊이다
③	꺾이다	녹이다	쌓이다
④	떼이다	엮이다	늘이다
⑤	기울이다	줄이다	덮이다

[문법요소 평가원 / 사관1차 / 교육청 기출문제]

1. <자료>와 같이 문장을 수정할 때 고려한 사항을 <보기>의 ㉠~㉤에서 고른 것은? [2016 9월 모평A]
<보 기>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 너희가 기억할 것은 좋은 지도자는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
→ 너희가 기억할 것은 좋은 지도자는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부사어와 연결 어미의 호응

-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서 그것을 쓸 줄 모른다.
→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쓸 줄 모른다.

㉢ 목적어의 누락

- 상대방의 함정에 빠진 그들은 머리를 모아 궁리하기 시작했다.
→ 상대방의 함정에 빠진 그들은 머리를 모아 탈출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 피동의 중복

- 그것은 오래전에 불려지던 노래이다.
→ 그것은 오래전에 불리던 노래이다.

<자 료>

- 그 프로그램을 쓰면 비록 초보자일수록 누구나 쉽게 표와 그래프 등을 그려서 작성할 수 있다.
→ 그 프로그램을 쓰면 비록 초보자일지라도 누구나 쉽게 표와 그래프 등을 그려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 <보기>에서 잘못된 문장을 고쳐 쓴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6월 모평A]

<보기>

○ **중의적 문장을 사용한 경우**

㉠ 나는 형과 누나가 추천한 영화를 보았다.

→ 나는 형과 누나가 추천한 영화를 집에서 보았다. ㉡

○ **의미를 중복하여 사용한 경우**

㉢ 그 문제는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다.

→ 그 문제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

○ **사동 표현이 잘못된 경우**

㉤ 내가 친구 한 명을 소개시켜 줄게.

→ 내가 친구 한 명을 소개해 줄게. ㉥

○ **호응 관계가 잘못된 경우**

㉦ 내일은 구름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 내일은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

○ **높임 표현이 잘못된 경우**

㉨ 손님께서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 손님께서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 다음 중 문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문장은? [2016 수능 공통]

① 그는 자기가 창안한 사회 이론을 더욱 발전해 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②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두 사람은 눈짓을 주고받은 후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③ 유럽은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생산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라 사회 조직의 큰 변화를 겪었다.

④ 이 책의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려는 요점은 모름지기 사람은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

⑤ 그의 작품들은 엇비슷해서 학생들이 작품 이름의 혼동이나 각 작품의 이야기 즐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4.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 사관1차 국어B]

< 보 기 >

우리말 높임법 중 서술의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경우를 객체 높임법이라고 한다. 객체 높임법은 특별한 어휘를 이용하거나 조사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 ① 이 상자는 어느 분에게 드리면 될까요?
- ② 학생분들은 모두 입구 쪽으로 오십시오.
- ③ 창목이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 ④ 어제는 대학교 지도 교수님을 뵈고 왔습니다.
- ⑤ 송현이가 선생님께 모르는 것을 여쭙보았습니다.

5. <보기>에 나타난 국어의 경어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06 사관1차 국어B]

< 보 기 >

- ㉠ 영희야, 할머니 잘 모시고 가야 한다.
- ㉡ 선생님,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 ㉢ 할머니께서는 진지를 맛있게 드셨다.
- ㉣ 자네는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나?
- ㉤ 할아버지, 아버지가 방금 퇴근했습니다.

- ① ㉠ : 행위의 주체와 객체를 동시에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
- ② ㉡ : 청자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표현이 드러나 있다.
- ③ ㉢ : 행위의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기에 높임말이 사용되었다.
- ④ ㉣ : 청자가 화자보다 아랫사람일 때 사용하는 표현이 있다.
- ⑤ ㉤ : 청자가 행동의 주체보다 높아서 주체를 높이지 못했다.

6. <보기>의 ㄱ~ㅁ은 중의문들이다. 제시된 의미 조건에 맞게 ㄱ~ㅁ의 중의성을 해소하는 활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 사관1차 국어B]

< 보 기 >

ㄱ. 형은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고 싶어 한다.
 ㄴ. 아름다운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다.
 ㄷ. 철호가 오늘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
 ㄹ. 언니가 아이에게 예쁜 옷을 입혔다.
 ㅁ. 혜원이는 새로 산 체육복을 입고 있다.

구분	의미 조건	중의성을 해소한 문장
ㄱ	형은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좋음.	→ 어떤 사람이든지 형을 만나고 싶어 한다. ... ①
ㄴ	그녀의 손이 아름답음.	→ 아름다운,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다. ... ②
ㄷ	철호가 도서관에 간 것은 오늘이 아니라 다른 날임.	→ 철호가 오늘 도서관에는 가지 않았다. ... ③
ㄹ	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으라고 시켜서 아이가 직접 옷을 입음.	→ 언니가 아이에게 예쁜 옷을 입게 하였다. ... ④
ㅁ	혜원이는 새 체육복을 이미 몸에 착용했음.	→ 혜원이는 새로 산 체육복을 입은 상태이다. ... ⑤

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사관1차 국어B]

< 보 기 >

(장면 1: 수업 중)
 선생님 : 여러분, 오늘은 '문학과 삶'이라는 주제로 김동리의 소설 '역마'를 배울 ㉠ **차례입니다**. '역마살'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 친구라면 소설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모둠 활동을 할 것이니 다들 본인이 속한 모둠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철 수 : (자리를 옮긴 후 짝인 영희를 쳐다보며) 너, 안 좋은 일 있어? 오늘따라 아파 보여.
 영 희 : 아냐. 걱정해 줘서 고마워. 그런데 담임선생님께서 아침 조회 이후로 별다른 ㉡ **말씀 없었니?**
 (장면 2: 하교하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선생님 : 어머, 영희구나. 학교 밖에서 보니 더 반갑네.
 영 희 : 저도 여기에서 선생님을 ㉢ **볼**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 : 오늘 수업 시간에 힘들어 보이던데 많이 피곤했나 보구나.
 영 희 : 아니에요, 선생님. ㉣ **제가** 아침에 아파서 못 일어났는데 늦잠을 잔다고 할아버지께 혼나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선생님 : 그렇구나. 그 이후로 할아버지께서 그에 대해 이야기 안 하셨어?
 영 희 : 네, 할아버지께서는 ㉤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신 일에는 완고하세요.

- ① ㉠ : 선생님은 수업 장면이라는 공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 ② ㉡ : 주체인 '담임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말씀 안 계셨니?'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
- ③ ㉢ : 객체인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특수 어휘 '뵈다'를 활용하여 '봬'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
- ④ ㉣ : 선생님과 대화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자신을 낮추어 가리키는 대명사 '제'를 사용하고 있다.
- ⑤ ㉤ :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를 다시 가리키고 있으므로 '자기가'는 '당신께서'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

8. 다음의 ㉠~㉥에 사용된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 사관1차 국어B]

㉠	<한 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선생님 아까 수업 마치시고 일찍 퇴근하시는 것 같던데.
㉡	<가게 점원이 손님에게>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고모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
㉣	<학교 후배의 집에 전화한 선배가 후배의 초등학생 아들(철호)에게> 철호야, 잘 있었어? 아저씨인데, 아빠 지금 집에 계시니?
㉤	<장모가 사위에게> 잘 가게. 특히 고속도로에서 운전 조심하게.

- ① ㉠ :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인 선생님을 높여 말하고 있다.
- ② ㉡ : ‘나오셨습니다.’는 ‘커피’를 손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여 간접 높임 표현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나왔습니다’로 고쳐 말해야 한다.
- ③ ㉢ :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특수 어휘 ‘잡수시다’를 통해 높여 말하지만, 할아버지보다 낮은 사람인 고모에 대해서는 ‘하였습니다’와 같이 말하여 주체를 높이지 않고 있다.
- ④ ㉣ : 화자의 후배이지만 청자인 아들의 입장에서는 높여 말해야 하는 아버지이므로, 화자는 특수어휘 ‘계시다’를 통해 후배를 높여 말하고 있다.
- ⑤ ㉤ : 화자인 장모는 사위를 높여 말해야 할 필요가 없으나, 직접적으로 낮춰 하기가 어색하므로 두루 높임의 하계체 명령형 어미를 통해 사위를 높여 말하고 있다.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7 수능]

국어에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접미사는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어간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눅다’의 어근 ‘눅-’에 접미사 ‘-아’가 붙어 새로운 어간 ‘눅아’가 형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눅이다’의 어간 ‘눅아’는 ‘눅다’의 어간 ‘눅-’과 구별된다. 둘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예를 들면, 명사 ‘먹이’나 ‘넓이’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단어이다. 이때 ‘먹이’와 ‘넓이’의 ‘먹-’과 ‘넓-’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셋째로, ㉠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동사 ‘익다’와 ‘먹다’의 어근에 각각 접미사 ‘-하-’와 ‘-아-’가 붙어 형성된 ‘익히다’와 ‘먹이다’는 ‘고기를 익히다.’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에 서와 같이 사동의 의미를 가진다.

넷째로, ㉡ 접미사는 타동사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안다’의 어근 ‘안-’에 접미사 ‘-가-’가 붙어 형성된 ‘안기다’는 ‘아기가 엄마한테 안기다.’와 같이 피동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는 ‘눅다’, ‘식다’와 같은 자동사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한편, 하나의 접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접미사 ‘-하-’는 ‘읽다’의 어근 ‘읽-’에 붙어 ‘읽히다’를 만들 수 있지만, ‘살다’의 어근 ‘살-’에는 붙지 못한다. 어근 ‘살-’에는 접미사 ‘-라-’가 붙어 ‘살리다’가 형성된다. 또한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들 수 없다. 가령, 어근 ‘읽-’과 접미사 ‘-하-’ 사이에 ‘-사-’와 같은 선어말 어미가 끼어든 ‘읽시하-’와 같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9. 밑줄 친 부분이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 : 형이 동생을 울렸다.
㉡ : 그는 지구본을 돌렸다.
- ② ㉠ :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 : 우리는 용돈을 남겼다.
- ③ ㉠ : 공책이 가방에 눌렸다.
㉡ : 옷이 못에 걸려 찢겼다.
- ④ ㉠ : 바위 뒤에 동생을 숨겼다.
㉡ :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겼다.
- ⑤ ㉠ : 나는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
㉡ : 그는 소년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10. 다음 중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2016 경찰대]

- ① 기차가 발차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 ② 나무 밑에도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 ③ 그날 이후로 철수의 생활 방식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 ④ 꼭대기가 평평하게 되어 있는 산지인 고원은 세계의 지붕이라 일컫는 파미르 고원을 비롯하여 많은 고원이 있다.
- ⑤ 박 선생이 (중략) 농장일을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죄인으로 다스릴 증거를 잡지 못하였다.

11. 다음 중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2014 경찰대]

- ① 빨래의 물기를 완전히 탈수하여 널어라.
- ② 다 지난 문제를 새삼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
- ③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이 쉬이 믿겨지지 않았다.
- ④ 훈련은 나를 힘들게도 하였지만 보람을 주기도 하였다.
- ⑤ 키는 작달막하나 가슴팍이 떡 벌어진 게 여간 다부진 몸매였다.

12. 다음 중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2015 경찰대]

- ① 이 연필의 장점은 연필심이 잘 부러지지 않는다.
- ② 동생은 5년 동안 김 교수에게서 피아노를 사사하였다.
- ③ 밤을 새고 잠의 유혹을 물리치기란 좀처럼 어려운 일이다.
- ④ 돌이켜 회고해 보면 우리는 형극의 가시밭길을 걸어 왔다.
- ⑤ 가정은 인간성의 함양과 사회적 덕목을 계발하는 터전이다.

[15강] 중세국어 출제경향 및 개념

Note

1. 제자원리

1) 초성의 제자 원리

구분	기본자	가획자	병서자	이체자
어금닛소리	ㄱ	ㅋ	ㆁ	ㅇ
혓소리	ㄴ	ㄸ, ㅌ	ㄸ	ㄹ
입술소리	ㅁ	ㅂ, ㅍ	ㅃ	
잇소리	ㅅ	ㅆ, ㅈ	ㅆ, ㅊ	ㅅ
목소리	ㅇ	ㅎ, ㅎ	ㅎ	

- 상형의 원리 : 기본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 가획의 원리 : 소리의 세기에 따라 기본자에 획을 더해 가획자를 만들었다.
- 이체의 원리 : 이체자의 경우, 소리의 세기와 상관없이 만들어 졌다.
- 병서자 : 나란히 쓴 글자
 - * 각자 병서 : 된소리(쌍자음)
 - * 합용 병서 : 다른 자음끼리 결합 (ㅃ, ㅆ, ㅊ, ㅆ 등)

2) 중성(모음)의 제자 원리

구분	기본자	초출자(기본+기본)	재출자(초출+)
ㅏ(양성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ㅓ(음성 모음)	ㅓ	ㅕ, ㅗ	ㅗ, ㅑ
ㅗ(중성 모음)	ㅗ	ㅑ, ㅓ	ㅕ, ㅗ

3) 중성의 제자 원리

- 중성부용초성 : 초성을 다시 중성에 사용함.
- > 8중성법으로 바뀜. 현재는 7중성법(발음상).

2. 중세국어의 특징

1) 중세 국어의 특징 (15C를 중심으로)

① ‘ㅇ(여린히음), △(반치음), ㅅ(순경음 ㅅ), ·(아래아), ㅇ(옛이음)’ 등 사용.

예 수·빚(15C)>쉬이(쉽게)

② 어두 자음군 표기. 예 ㅼ들(15C)>똥을, ㅼ메(15C)>쌈에

어두 자음군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ㅼ 또는 그 이상의 자음의 연속체. 현대 국어에 된소리로 변화 예 ㅼ들(똥), ㅼ메(쌈), ㅼ(똥) (된소리는 하나의 자음으로 어두 자음군이 아님)
--------	---

③ 모음 조화 철저. 예 字쫙틀(15C)>자를

모음 조화	앞 음절의 모음과 뒤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ㅏ, ㅑ, ㅓ)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ㅓ, ㅕ, ㅗ)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음운 현상. 예 찰싹: 찰씩, 알록달록: 얼룩덜룩, 막아: 먹어 (15C는 철저하게 지켜졌지만, 16C부터 문란해져 현재는 ‘강충강충’, ‘아름다워’의 표현도 쓰임.)
-------	---

④ 구개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음. 예 ㅼ디(15C)>ㅼ지

구개음화	‘ㅣ’계열 모음에 선행하는 설음 ‘ㄷ, ㅌ’ 이 구개음 ‘ㅈ, ㅊ’로 변하는 현상. 예 ㄱ디>ㄱ이[구지], 가티>같이[가치], 다티다>다히다[다치다]
------	--

⑤ 원순 모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음. 예 스믈(15C)>스물

원순 모음화	자음 순음(ㅂ ㅃ ㅍ ㅈ) 아래에 모음 평순음 ‘-’가 원순음 ‘ㅜ’로 변하는 현상. 예 물>물, 불>불, 무지게>무지개
--------	--

⑥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예 니르고져(15C)>이르고자

두음 법칙 (頭音法則)	단어의 첫소리에 ‘ㄹ’이나 ‘ㅍ, ㅋ, ㆁ, ㅍ, ㅍ, ㅍ’와 결합하는 ‘ㄴ’이 탈락하는 현상 예 노동(勞動), 근로자(勤勞者), 여자(女子), 남녀(男女)
--------------	--

⑦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

방점(傍點)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 성조(소의 높낮이)를 표시
① 평상 낮은 소리, 방점 없음 예 나	② 상승 낮가 높아지는 소리, 방점 2 예: 말(현대 국어 장음)
③ 가상 높은 소리, 방점 1 예: 미	④ 입상 빨리 닫는 소리, 방점 관계 없음 예: 랫(범침 ㄱ, ㄷ, ㅂ, ㅅ 경우)

⑧ 현대 국어와 다른 조사 사용

비교나 기준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 사용	예) 동국에 달아(15C) > 중국과 달라
'동등 비교'의 의미를 가지는 비교격 조사 '와로' 사용	예) 文문字장와로(15C) > 문자와는
주격 조사가 자음+ '이' / 모음+ 'ㅣ' / '∅'	예) 흙·배(15C) > 할 바가

⑨ 현대 국어와 다른 어휘의 의미

의미 이동	예) 어린: 어리석은(15C) > 나이가 적은, 어엿비: 가엿게(15C) > 불쌍하게, 예쁘게
의미 축소	예) 높: 사람(15C) >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의미 확대	예) 영감: 당상관 이상의 높은 벼슬하는 사람 > 남자 노인을 두루 가리키는 말

⑩ 이어 적기(연철) 원칙.

15C	16C	17C ~ 19C	한글맞춤법통일안(1933~)
이어 적기(연철)	이어 적기+끊어 적기(분철)	이어 적기+끊어 적기+거듭 적기(중철)	끊어 적기(분철)
말씀미	말씀미 + 말씀이	말씀미 + 말씀이 + 말씀미	말씀이

⑪ 받침 표기: 8 종성법

1445년 '용비어천가'	15C ~ 16C	17C ~ 19C	한글맞춤법통일안(1933~)
종성부용초성	8 종성법	7 종성법	종성부용초성
모든 자음을 종성에 사용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 ㄴ, ㄹ, ㅁ, ㅂ, ㅅ, ㅇ	모든 자음을 종성에 사용

⑫ 동국정운식 한자음

동국정운(東國正韻)	세종 29년(1447) 때 편찬된 운서(韻書). 한자의 표준 발음을 훈민정음으로 규정.
① 한자를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 ②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표기 예) 世·생 ③ 초성의 'ㅎ' 사용 예) 音·흙 ④ 이영보래(以影補來): 한자의 'ㄹ' 받침은 'ㅇ'을 덧붙여 입성으로 발음 예) 弊·별	

2) 중세국어 심화개념

① 격 조사의 변화

- 주격 조사: 15세기 국어에는 주격 조사로서 ‘이, ㅣ, ∅’가 있었으나,
중세 국어 시기 말에 나타난 ‘가’가 근대 이후 널리 쓰여
현대 국어에서는 ‘이/가’로 나타남.

예) 식미[십-이] 기픈 들은 / 우리 始祖 ㅣ 慶興에

- 목적격 조사: 15세기 국어에서는 목적격 조사가 모음 조화에 의해
‘을/를, 올/롤’로 나타났으나 현대 국어는 ‘을/를’로 나타남.

예) 我后를 기드리스바 / 天下를 맛드시릴씨

② 문장 구조의 변화

- 의문형 어미를 구분한 중세 국어의 의문문
: 현대 국어에서는 의문문에 물음말이 있든 없든,
주어의 인칭이 어떠하든 의문형 어미를 구분하지 않게 됨.

예) 西京은 편안하가 묻하가/故園은 이제 엇더하고 / 네 엇더 안다

③ 기타 문장표현의 변화

- ㅎ 종성체언
- ㄱ 종성체언
- 주체높임의 변화
- 객체높임의 변화
- 상대높임의 변화

[로마자표기법]

제1항 모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a	eo	o	u	eu	i	ae	e	œ	wi

2. 이중 모음

ㅑ	ㅓ	ㅕ	ㅠ	ㅞ	ㅟ	ㅛ	ㅜ	ㅝ	ㅞ	ㅟ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제2항 자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ㅍ	ㅃ	ㅍ
g k	kk	k	d, t	tt	t	b, p	pp	p

2. 파찰음 3. 마찰음 4. 비음 5. 유음

ㅈ	ㅉ	ㅊ	ㅅ	ㅆ	ㅎ	ㄴ	ㅁ	ㅇ	ㄹ
j	jj	ch	s	ss	h	n	m	ng	r, l

[붙임 1] ‘ㄱ, ㄷ, ㅍ’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되,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외래어표기법]

• 외래어 표기의 원칙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16강] 중세국어 실전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중세국어 실전 연습문제]

1. <보기>의 ㉠~㉣을 탐구하여 이끌어 낸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孔·공子·직·曾·증·子·조·드·려 ㉡닐·러·콜·은·샤·디·몸·이며·얼·굴·이·며·머·리·털·이·며·솔·훈·父·부·母·모 ㉢·씩·받·조·온 ㉣거·시·라·敢·감·히·혈·위·상·히·오·디아·니·흙·이·효·도·익·비·르·소·미·오·몸·을·세·워 ㉤道·도·를·行·행·하·야 ㉥일·흙·을·後·후·世·세·에·베·퍼·써·父·부·母·모·를·현·더·케·흙·이·효·도·익 ㉦·므·춤·이·니·라

-‘소학언해(小學諺解)’권 제2, 선조 20년(1587년)

[현대어 풀이]

공자가 증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몸과 형체와 머리털과 살은 부모께 받은 것이라, 감히 혈게 하여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시작이고, 입신(출세)하여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베풀으로써 부모를 드러나게 함이 효도의 끝이니라.

- ① ㉠은 ‘孔·공子·조+ㅣ’로 분석되어 현대 국어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말에 ‘가’가 붙는 것과 차이가 있군.
- ② ㉡은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예로, 현대 국어에서 단어의 처음절의 ‘ㅣ’모음 앞에 ‘ㄴ’이 오는 것에 제약이 있는 점과 차이가 있군.
- ③ ㉢은 현대 국어와 달리 ‘ㅅ’과 다른 자음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합용 병서를 활용하고 있군.
- ④ ㉣과 ㉤은 현대 국어에서 형태를 밝혀 적는 ‘끊어 적기’의 방식과 달리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 적기’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군.
- ⑤ ㉥과 ㉦은 현대 국어와 목적격 조사의 쓰임이 유사한 예로, 모음으로 끝난 말에는 ‘를’을, 자음으로 끝난 말에는 ‘을’을 사용하고 있군.

2. <보기>의 내용을 학습하여 얻은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모음 조화는 단어 내부나 어간과 어미와의 결합 시에 특정 모음끼리의 결합을 선호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현대 국어에서 모음 조화는 ‘팔짝팔짝’, ‘아장아장’과 같은 음성 상징어, ‘보았다/보아서’와 같이 일부 어미에서만 그 흔적이 남아 있고, 대부분은 붕괴되었다. 이렇게 모음 조화가 붕괴된 것은 국어사적으로 /·/(아래 아)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의 변화는 2단계에 걸쳐 일어난다. 1단계 변화는 어두가 아닌 곳에서의 /·/ > /- /의 변화 (16세기 무렵), 2단계 변화는 어두에서의 /·/ > /ㅏ /의 변화(18세기 무렵)라 할 수 있다.

- ① ‘강총강총’, ‘가물가물’은 현대 국어에서 모음 조화가 붕괴된 예라고 볼 수 있군.
- ② ‘잡았다/잡아서’는 일부 어미에 모음 조화의 흔적이 남아 있는 예라고 볼 수 있군.
- ③ ‘하나’가 ‘하나’로 변한 것은 /·/의 변화로 보아 1단계 변화에 해당하는 예라 볼 수 있군.
- ④ ‘가늘다’가 ‘가늘다’로 변한 것은 /·/의 변화로 인해 모음 조화가 붕괴된 것과 관련이 있군.
- ⑤ ‘보았다/보아서’는 ‘팔짝팔짝’과 달리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모음 조화가 적용된 것이군.

3. (가)를 참고할 때, (나)의 ㉠~㉣ 중 **선혜** 를 높이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가) 중세 국어의 높임법은 현대 국어와 동일하게 높임의 대상에 따라 세 가지 종류가 구별된다. 하나는 동작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다른 하나는 목적어나 부사어와 같은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 마지막은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다. 이들 높임법은 모두 선어말 어미를 통해 나타낼 수 있었다. 즉 주체 높임법은 ‘-시-’, 객체 높임법은 ‘-습 / 습-, -줍 / 줄-, -습 / 습-’, 상대 높임법은 ‘-이-’에 의해 표시되었던 것이다.

(나) **善慧(선혜)** ㉠니르샤되 五百(오백) 銀(은) 도노로 다섯 줄기를 사아지라 俱夷(구이) ㉡물조북샤되 므스게 ㉢쓰시리 **善慧(선혜)** ㉣對答(대답)흐샤되 부텃고 ㉤받조보리라

[현대어 풀이]

선혜가 이르시되 오백 은 돈으로 다섯 줄기를 사고 싶다. 구이가 물으시되 무엇에 쓰시리오? 선혜가 대답하시되 부처께 바치리라.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 <보기> 를 참고할 때,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15세기 국어에는 양순 유성 마찰음 ‘병[B]’이 존재했다. 그런데 ‘병’은 15세기 후반에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유성 마찰음 중 가장 먼저 없어졌다. 그 변화의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병’이 놓인 환경	‘병’의 변화 양상	예
‘병’ 뒤에 ‘ㅅ’나 ‘ㅈ’가 오는 경우	‘병’이 반모음 ‘w’로 바뀐.	㉠
‘병’ 뒤에 ‘ㄷ’나 ‘ㄹ’이 오는 경우	‘병’이 ‘ㄷ’와 합쳐져 ‘ㄴ’로 바뀌거나, ‘ㄹ’와 합쳐져 ‘ㄷ’로 바뀐.	㉡
‘병’ 뒤에 파생 접미사 ‘-이’가 오는 경우	‘병’이 탈락함.	㉢

- ① ㉠: 글밭 > 글왈
- ② ㉡: 더벅 > 더워
- ③ ㉢: 사오나툰 > 사오나온
- ④ ㉣: 치브니 > 치우니
- ⑤ ㉤: 고비 > 고이

[중세국어 평가원 / 사관1차 / 교육청 최근기출 집중분석]

1.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2016 수능B]

王(왕)이 니르샤디 大師(대사) ㉠흐산 일 아니면 뉘 혼 거시 잇고 ㉡仙人(선인)이 솔보디 大王(대왕)하 이 ㉢南堀(남굴)스 仙人(선인)이 혼 싹를 길어 내니 양지 端正(단정)하야 ㉣世間(세간)애 ㉤쉽디 '몬'하니 그 싹 흐녕 ㉥時節(시절)애 자취마다 ㉦蓮花(연화)ㅣ 나느니라

- 석보상절 -

[현대어 풀이]

왕이 이르시되 “대사 하신 일 아니면 누가 한 것입니까?” 선인이 아뢰되 “대왕이시여, 이 남굴의 선인이 한 딸을 길러 내니 모습이 단정하여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가) 쉽지 못하니 그 딸 움직일 시절에 자취마다 연꽃이 납니다.”

- ① ㉠에서는 주체인 ‘대사’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쓰였군.
- ② ㉡의 ‘이’와 ㉣의 ‘ㅣ’는 격 조사의 종류가 달라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군.
- ③ ㉢을 보니 ‘스’는 현대 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군.
- ④ ㉣과 ㉤을 보니 모음 조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부사격 조사가 있었군.
- ㉥과 현대 국어의 ‘쉽지’를 비교해 보니 ‘-디’에서는 구개음화가 확인되지 않는군.

2. <자료>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2016 9월 모평B]

<자 료>

[중세 국어] 五欲은 누네 ㉠요흔 빛 보고져 귀에 ㉡요흔 소리 듣고져 고해 ㉢요흔 내 맡고져 이베 ㉣요흔 맛 먹고져 모매 ㉤요흔 옷 입고져 흘 씨라

- 석보상절 -

[현대어 풀이] 오욕은 눈에 좋은 빛 보고자, 귀에 좋은 소리 듣고자, 코에 좋은 냄새 맡고자, 입에 좋은 맛 먹고자, 몸에 좋은 옷 입고자 하는 것이다.

- ① ‘五欲은’이 ‘오욕은’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보조사 ‘은’이 있었군.
- ② ‘누네 ㉠요흔 빛 보고져’가 ‘눈에 좋은 빛 보고자’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누네 ㉠요흔 빛’은 목적어로 쓰였군.
- ③ ‘귀에’가 ‘귀에’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부사격 조사 ‘에’가 있었군.
- ④ ‘㉢요흔’이 ‘좋은’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요흔’은 용언의 관형사형이었군.
- ⑤ ‘먹고져’가 ‘먹고자’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고져’는 종결 어미로 쓰였군.

3.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2016 6월 모평B]

<보기 1>

중세 국어 체언 중에는 ‘ㅎ’을 끝소리로 가진 것들이 있다. 이러한 체언을 ‘ㅎ’ 종성 체언이라고 하는데 조사가 뒤따를 경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뒤따르는 조사	‘ㅎ’ 종성 체언의 실현 양상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ㅎ’은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는다. 예 : ㅉㅅㅅㅅ (ㅉㅅㅅ+ㅅ) ㅅㅅㅅㅅ(ㅅㅅㅅ+ㅅ)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ㅎ’은 뒤따르는 ‘ㄱ’, ‘ㄷ’과 어울려 ‘ㅋ’, ‘ㅌ’으로 나타난다. 예 : ㅉㅅㅅㅅ (ㅉㅅㅅ+ㅅ) ㅅㅅㅅㅅ(ㅅㅅㅅ+ㅅ)
관형격 조사 ‘ㅅ’	‘ㅎ’은 나타나지 않는다. 예 : ㅅㅅㅅ (ㅉㅅㅅ+ㅅ) ㅅㅅㅅ(ㅅㅅㅅ+ㅅ) ㅅㅅㅅ(ㅅㅅㅅ+ㅅ)

<보기 2>

중세 국어	현대 국어
㉠ (나랏+을) 아스 맛디고	나라를 아우에게 맡기고
㉡ (길+ㅅ) 네거리예	길의 네거리예
㉢ (안+과) 밧	안과 밧

구분	㉠	㉡	㉢
①	나라흫	길	안과
②	나라흫	길	안과
③	나라흫	길	안과
④	나라을	길	안과
⑤	나라을	길	안과

4. <보기>의 (A), (B)에 들어갈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가장 적절하게 묶인 것은? [2018 사관1차]

— < 보 기 > —

·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실현되는 음운 환경

결합하는 어간	후속하는 어미	안울림소리로 시작	울림소리로 시작
모음으로 끝나거나 ‘ㄴ, ㅁ, ㄹ’로 끝남.		-습-	-습-
‘ㄱ, ㅂ, ㅅ, ㅇ’으로 끝남.		-습-	-습-
‘ㄷ, ㅈ, ㅊ’으로 끝남.		-줍-	-줍-

- (가) 無量壽佛 사르문 [현대어 풀이] 무량수불(을) 뵈 사람은
 [→ 보-+(A)+-은]
- (나) 無量壽佛의 나 正法 [현대어 풀이] 무량수불께 나 정법(을) 듣고자
 [→ 듣-+(B)+-고져]

- | | | | | | |
|---|-----|-----|---|-----|-----|
| | (A) | (B) | | (A) | (B) |
| ① | -스 | -즈 | ② | -스 | -즈 |
| | 뵈- | 뵈- | | 뵈- | 뵈- |
| ③ | -스 | -스 | ④ | -스 | -즈 |
| | 뵈- | 뵈- | | 뵈- | 뵈- |
| ⑤ | -스 | -스 | | | |
| | 뵈- | 뵈- | | | |

5.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017 수능]

<학습 활동>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과 ㉡를 보고, 중세 국어 ‘열다’, ‘흘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중세 국어] 큰 <u>마슴물</u> <u>여러</u>
	[현대 국어] 큰 마음을 <u>열어</u>
㉡	[중세 국어] 自然히 <u>마슴미</u> <u>여러</u>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u>열리어</u>
㉢	[중세 국어] 번개 구름을 <u>흐터</u>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u>흐어</u>
㉣	[중세 국어] 散心은 <u>흐튼</u> <u>마슴미라</u>
	[현대 국어] 산심은 <u>흐어진</u> 마음이다.

탐구 결과 : ㉠과 ㉡를 보니, _____ (가) _____

- ① 중세 국어 ‘열다’, ‘흘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흘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② 중세 국어 ‘열다’, ‘흘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흘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③ 중세 국어 ‘열다’, ‘흘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흘다’는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④ 중세 국어 ‘열다’, ‘흘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흘다’는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⑤ 중세 국어 ‘열다’, ‘흘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흘다’도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6~7] 다음은 용언의 활용에 관한 탐구 활동과 자료이다. <대화 1>과 <대화 2>는 학생의 탐구 활동이고, <자료>는 학생들이 수집한 학술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2017 6월 평가원]

<대화 1>

A : '(길이) 좁다'와 '(이웃을) 돕다'는 어간의 끝이 'ㅂ'으로 같잖아? 그런데 '좁다'는 '좁고', '좁아'로 활용하고 '돕다'는 '돕고', '도와'로 활용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B : 그러고 보니 '(신을) 벗다'와 '(노를) 젓다'도 어간의 끝이 'ㅅ'으로 같은데, '벗다'는 '벗어'로 활용하고 '젓다'는 '저어'로 활용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A : 그렇구나. 어간의 끝이 같은데도 왜 이렇게 다르게 활용하는 걸까? 우리 한번 같이 자료를 찾아보고 답을 알아볼래?

<자료>

현대 국어 '좁다'와 '돕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좁다'는 '좁고', '조바'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돕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돕고'처럼 어간이 '돕-'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도바'처럼 어간이 '뉵-'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현대 국어 '벗다'와 '젓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벗다'는 '벗고', '버서'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벗-'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젓고'처럼 어간이 '젓-'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저서'처럼 어간이 '젓-'으로 나타난다. 당시 국어의 음절 끝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의 소리가 올 수 있었기에 '돕고'의 'ㅂ'과 '젓고'의 'ㅅ'은 각각 '뉵'이 'ㅂ'으로 교체되고 'ㅅ'이 'ㅅ'으로 교체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도바'와 '저서'는 '뉵'과 'ㅅ'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뉵', 'ㅅ'은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소실되었다. 먼저 '뉵'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도바>도와', '더벅>더워'에서와 같이 'ㅂ' 또는 'ㄷ' 앞에서는 반모음 'ㅂ' / ㅅ [w]로 바뀌었고, '도부시니>도오시니', '셔블>셔울'에서와 같이 'ㅂ' 또는 'ㄷ'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ㅂ' 또는 'ㄷ'로 바뀌었으나,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ㅂ'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ㅅ'은 16세기 중엽에 '아스>아으', '저서>저어'에서와 같이 사라졌으며,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ㅅ'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를 겪은 말 중에 '셔울', '도오시니', '아으'는 18~19세기를 거쳐 '셔울', '도우시니', '아우'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대화 2>

A : 자료를 보니 '뉵', 'ㅅ'이 사라지면서 '도바'가 '도와'로, '저서'가 '저어'로 활용형이 바뀌었네.

B : 그럼 '(고기를) 굽다'가 '구워'로 활용하고, '(밥을) 짓다'가 '지어'로 활용하는 것도 같은 거겠네!

A : 맞아.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굽다'하고 '짓다'가 불규칙 활용을 하게 된 거야.

6.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도와’, ‘저어’와 같은 활용형은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군.
- ② 15세기 국어의 ‘도바’가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나는 것은 ‘빙’이 어간 끝에서 ‘ㅂ’으로 바뀐 결과이군.
- ③ 15세기 국어의 ‘저서’가 현대 국어에서 ‘저어’로 나타나는 것은 ‘ㅅ’의 소실로 어간의 끝 ‘ㅅ’이 없어진 결과이군.
- ④ 15세기 국어의 ‘돕고’와 현대 국어의 ‘돕고’는, 자음으로 시작 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 ⑤ 15세기 국어의 ‘젓고’와 현대 국어의 ‘젓고’는, 자음으로 시작 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7.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따라, 현대 국어 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과 17세기 초엽에서의 활용형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15세기 중엽 이전			17세기 초엽		
		-게	-아/-어	-은/-은	-게	-아/-어	-은/-은
①	(마음을) 굽다	굽게	고바	고븨	굽게	고와	고온
②	(선을) 긋다	긋게	그서	그슨	긋게	그서	그슨
③	(자리에) 눅다	눅게	누벼	누븨	눅게	누워	누은
④	(머리를) 빗다	빗게	비서	비슨	빗게	비서	비슨
⑤	(손을) 잡다	잡게	자바	자븨	잡게	자바	자븨

8. <보기>의 (가)와 (나)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사관1차]

< 보 기 >

(가) [중세 국어 자료]
 :시내 횃:돈 덕 숲 브름기 기리 :부늬니 푸른 쥐 :넛 디셋 서리에 숨다
 :아디 :몽흐 리로다 어 느 :님굶 宮殿(궁전)고 기튼 지슨 거시 노푼 石壁(석벽)스 아래로다
 어득흔 房(방)엔 컷거식 브리 푸르 고물 어딘 길 헨 슬픈 므리 흐르놏다
 여러 가지 소리 眞實(진실)스 더와 피릿 소리 곧 도소니 ㄱ숯 비치 正(정)히 ㄱ꺏 ㅎ도다
 -두보, 「옥화궁(玉華宮)」 『초간본 두시언해』 (1481년) -

(나) [현대 국어 자료]
 시내 휘도는 데 솔 바람이 길이 부나니 푸른 쥐 옛 기와 사이에 숨는다.
 알지 못하리로다, 어느 임금의 궁전인가? 남은 지은 것이 높은 석벽의 아래로다.
 어둑한 방에는 귀신의 불이 파랗고 무너진 길에는 슬픈 물이 흐르는구나.
 여러 가지 소리 진실로 저와 피리의 소리 같더니 가을 빛이 정히 깨끗하도다.

- ① (나)의 ‘옛’을 고려할 때, (가)의 ‘넛’에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군.
- ② (나)의 ‘임금의’를 고려할 때, (가)의 ‘님굶’ 에 서 ‘스’은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했군.
- ③ (나)의 ‘불이’를 고려할 때, (가)의 ‘브리’에는 원순모음화가 나타났군.
- ④ (나)의 ‘-는구나’를 고려할 때, (가)의 ‘-놏다’는 감탄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군.
- ⑤ (나)의 ‘빛이’를 고려할 때, (가)의 ‘비치’는 이어적기 표기를 했군.